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 바른 진리와 정의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에베소서 6장 14, 15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www.chpress.net | 주후 2020년 10월 24일 (토) 제 1799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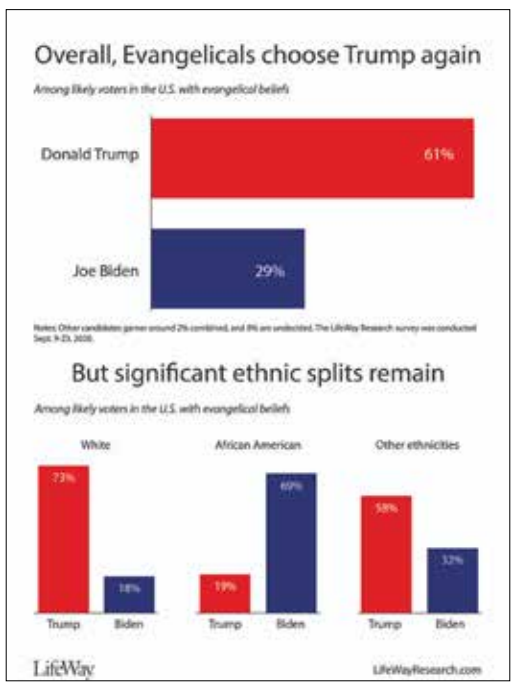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2020대선 변수 될까?

Lifeway Research,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바이든 후보의 2배 설문 결과 보도

미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및 핵심 경합주(swing states)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세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뒤집기'가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ABC방송이 운영하는 선거 예측 사이트인 '파이브서티에잇'은 현재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87%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다른 선거 예측 사이트 '디시전 데스크 HQ'의 확률은 85.9%다.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현재 내놓은 바이든 당선 확률은 91%다. 이들 수치는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가능성이 여전히 약 10% 정도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 복음주의적 크리스천은 압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기독교계 출판업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약 61%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약 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기타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은 약 2%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약 8%로 조사됐다(Most Evangelicals Choose Trump Over Biden, But Clear Divides Exist). 그러나 인종별로는 심각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때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복음주의 기독교인(Evangelical Christian)'이 주목받고 있다. 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강한 조직력과 결속력을 바탕으로 일반 유권자보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대선 같은 대형 정치 행사를 낙태 및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총기 자유화 등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2004년 대선과 2016년 대선에서 모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79%)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81%)에게 몰표를 던져 당선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사후 불과 8일 만에 낙태 반대론자인 보수 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한 것도 핵심 지지층인 이들의 지지가 재선에 필수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25.4%가 복음주의자다. 올해 미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전체 인구 3억3354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8472만 명이 복음주의자로 추정된다는 뜻이다. 인종별로는 백인(76%)이 가장 많고 히스패닉(11%), 흑인(6%) 등이 뒤를 잇는다. 연령대는 30-49세(33%), 50-64세(29%), 65세 이상(20%), 18-29세(17%) 등으로 중장년층이 대다수다. 성별은 여성(55%)이 남성(45%)보다 더 많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43%) 및 대학교육 일부 경험(35%)이 7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스스로의 정치성향을 보수(55%)라고 여기는 사람이 진보(13%)라고 답한 사람보다 많다. 이들은 낙태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며 사형제, 총기 보유,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 감세, 가정의 가치 등을 중시한다. 라이프웨이의 올해 3월 여론조사에서 복음주의자의 73%가 "성(性) 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복음주의자들은 대선 때마다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2016년 대선 당시 복음주의자의 투표율은 61%로 전체 유권자(55.7%)보다 높았고 무신론자(40%)와는 21%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들이 투표에 적극적인 이유는 낙태 등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첨예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여론 우위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이념을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고, 또 그 대통령이 보수 대법관을 많이 지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번 결혼했고, 여러 차례 성추문에 휩싸였다. 이상적 가정을 꿈꾸는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지 않을 법한 정치인인데도 왜 몰표를 받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생활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가 2017년 집권 이후 줄곧 반낙태, 반이민 정책을 펴며 복음주의자들이 선호하는 정책을 구현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3명의 대법관을 지명했다. 집권한 지 석 달 만인 2017년 4월 닐 고서치, 2018년 10월 브렛 캐버노, 지난달 배럿을 골랐다. 각각 지명 당시 나이는 50세, 53세, 48세에 불과해 60대 이상이 많았던 전임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과 상당한 대조를 보였다. 세 사람은 모두 보수 성향이 강하며 낙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은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펜데믹 상황에도 부자들은 더 부유

허핑턴포스트, 50명 대 1억6500만명...미국 빈부격차 통계 보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도 부자들은 더 부유해졌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자산이 올해 상반기 동안 계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미국 인구의 절반인 하위 1억6500만명의 자산을 모두 합한 것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른 결과다(The richest got even richer this year while the poorest struggled even more).

부유층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부유해진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미국에서 21만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코로나19는 유색인종과 고령층, 여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블룸버그 빌리어네어 인덱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50명의 재산은 올해 초보다 339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 2조 달러 수준이다.

연준 자료에 따르면 이는 미국 인구의 절반인 하위 1억6500만명이 소유한 자산 2조80억 달러와 비슷하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위 1%의 자산은 총 34조2000억 달러로, 미국 가계자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주식과 뮤츄얼펀드 등은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부유층과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단행한 막대한 감세 혜택을 받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전미실물경제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설에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코로나19의 불균형한 영향, 대부분 여성에게 전가된 격리 기간 동안의 보육과 원격수업의 부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은 부의 불평등과 경제적 이동 가능성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3면 **시 론** 김인환 목사

4면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16면 **팬더믹 시대의 선교...** 김석기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싱글맘, 싱글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젼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학위과정	교차문화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특 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3020 Wilshire BL))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Pell Grant) 및 켈리포니아 학비보조 (Cal Grant)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졸업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ATS 정회원 ABHE 정회원 TRACS 정회원

이벤트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5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12월 입학허가시 $300불)

이벤트2. 화상입학설명회
10월 29일, 목, 오후 4시
학교 홈페이지의 화상 입학 설명회 링크 (gm.edu/online) Zoom Interview : 726-399-1642 / pw: 2020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학교 홈페이지 LiveChat 및 Zoom 으로 실시간 입학상담가능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발행인 칼럼 ●

O Captain! my Captain!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수업 시간에 이슬람을 풍자한 만평을 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 설명했던 교사가 참수되어 죽은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18세에 불과한 범인은 뒤쫓던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한다. 프랑스 내의 주류 사회와 이슬람교도들의 갈등이 극명하게 표출된 사건이다. 교사의 처참한 죽음 앞에 수많은 교사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도 한다. 오래전 상영되었던 영화가 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과 그들의 가르치는 교사 존 키딩의 이야기가 흥미진지하게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펼쳐진다. 무엇인가에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는 학생들. 제대로 숨도 못 쉴 것 같은 압박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에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 사물을 다르게 보면서 진정한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사는 것을 가르치려했던 키딩은 결국 교단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를 떠나보내는 학생들은 늘 그 아래 앉아만 있던 책상 위에 올라서서 다르게 보는 삶을 다짐하는 모습을 선생님에게 보인다.

교사의 길은 쉽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사명감이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이다. 지식만 가르치는 일만이 교사의 일일 수는 없고 분명한 기준과 올바른 가치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이다. 그런 소신으로 걷는 교사의 길 앞에는 숱한 어려움이 있다. 자기 자신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소명의 확신이 그 어려움 중의 하나이며 학생들의 태도와 그들과의 관계, 부모들의 바람직한 바람이나 어이없는 요구, 몸담고 있는 학교 지도부의 권위와 사회의 여러 통념, 다양한 정치적 종교적 성향 등등이 크고 작은 난제들이다. 어떻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을 품고 가다가 때로는 희생도 당해야하는 모든 시대에서 교사들은 진정한 영웅들이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인류의 발전을 논할 수 없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도 그 열매는 보지 못하고 암살당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추모하며 우러트 휘트만이 쓴 시가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인용되었다. "O Captain! my Captain! our fearful trip is done; The ship has weather'd every rack, the prize we sought is won; The port is near, the bells I hear, the people all exulting..../오 캡틴! 나의 캡틴이여! 우리의 두려운 항해는 끝났습니다. 배는 모든 역경을 헤쳐왔고, 우리가 찾았던 보물을 얻었습니다. 항구가 가깝습니다.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따르면 그 배의 함장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였다. 그가 이룬 놀라운 업적에 기뻐하고 함장의 귀환을 축하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는 그 배에는 함장이 죽어 누워 있다. 함장이여 일어나 저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을 보라고 선원들은 함장을 깨우고 있다.

우리 앞의 캡틴들은 어려운 풍랑을 헤치며 위대한 일을 이루고 떠났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이다. 이젠 우리 몫이다. 우리 앞에도 여전히 센 풍랑이 불어온다. 이 높은 파고를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지 두렵다. 우리의 생애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우리 각자들을 향해 과연 "O Captain! my Captain!"이라고 불러줄까.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 아닌 '교회'

Churchleaders.com, 소그룹 전략/영성형성 전문가 알렌 화이트, 온라인교회 활성화 노하우 제시

영상 스트리밍이 온라인 교회개념과 동일하지 않은 이유: 온라인상의 교회는 카메라에 직접 대고 말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회중을 양육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다. 영상을 스트리밍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다. 영상이 스트리밍(실시간 또는 녹화) 되는 동안 시청자는 참가자가 아닌 관찰자가 된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는 3-4년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물론 정상화라는 것이 애초에 가능하다면 말이다.

최근 목회자들과의 대화를 토대로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교회 성도들 중 약 30%가 현장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현저히 더 많다. 실제로 대부분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보다 온라인상에서 출석하는 숫자가 더욱 높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어제 나와 이야기를 나눴던 한 목회자는 1년 전까지만 해도 550명이 예배에 출석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요즘에는 200명 정도가 현장에서 예배하고, 1,600명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이러한 온라인 회중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을까(Streaming Video Is NOT the Same as Church Online)?

온라인상의 교회는 단순히 현장예배를 스트리밍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 예배에서는 화면을 더욱 가깝게 잡을 필요가 있다. 예배시간은 더욱 짧으며, 설교는 45분이 아닌 20-30분에 가깝다. 설교가 거실에 있는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카메라에 얼굴을 바짝 대고 말해야 한다. 넓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것과 작은 화면을 향해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이다.

수동적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3-40년 전, 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현장예배를 단순히 스트리밍 하는 작업만 한다면 경멸

온라인상의 교회는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사역은 그저 "색다른 것"이었다. 하지만 2020년을 맞이하면서 온라인사역은 "필수적인 것"이 돼버렸다. 지난 몇 달 동안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정상화가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붙여놓는 반창고 정도로 간주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기가 언제 끝나고 정상화가 될지, 또한 무엇이 정상화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 물론 온라인상에서 더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위안이 된다. 통계를 살펴보면 이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펜데믹 끝나도 온라인예배 계속...현장예배와 다른 설교 방식 필요
회중과 온라인 연결/소통방법 시도...소그룹, 양육, 헌금, 봉사해야

지금까지 교회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예배하기 위해 다시 모이기 전까지 온라인상에서 교회를 구현해 나가는 일을 잘 해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현장에 직접 예배하러 돌아오니, 그 숫자가 회중전체 중에 극히 일부일지라도, 온라인상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모인 소수를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려는 유혹이 불쑥 엄습하는 것이다.

이는 당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다. 목회자가 예배실에 모인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동시에 집에서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다수의 회중을

교회들이 전통적인 예배에서 현대적인 예배로 전환하던 시기가 생각난다. 당시 많은 교회들이 변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었다. 현실적으로, 그 일로 교회 내의 핵심멤버들이 소외를 느끼게 되면, 헌금이 줄어들고 목회자는 해고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교회는 전통예배와 현대예배를 따로 따로 병행했다.

몇몇은 "블랜디드(혼합)" 예배를 시도했지만, 스튜어트 브리스코(Stuart Briscoe)는 "컨템포러리(현대적인 것)와 트레디셔날(전통적인 것)을 섞으면 컨템티블(경멸스러운 것)로 끝나지요!"

스러운 결과를 맞을 수 있다. 현장에 직접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고 카메라만 바라보고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TV에 나오는 설교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모여 있는 회중을 향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온라인상의 회중을 무시한다면, 결국 그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나는 교회가 두 가지 예배 스타일을 다 채택해야 하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믿는다. 바로,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다. 현장예배는 스트리밍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장에 직접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배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온라인상의 회중과 어떻게 연결/소통하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다음 단계들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들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는가? 매 주말이 되면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해야 하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그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현장예배를 찾아오는 방문자들을 대하듯 그들에게 그 다음 단계들을 밟을 수 있도록 도전을 줘야 한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가주 장의사 직원 구함
1. 안수받은 목사님1명과 사무실 여직원
2. 한국어,영어 능통하신분
3. 컴퓨터 하실수 있는분
562)622-939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굼시,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기간 : November 20, 2020
• 제 출 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복음주의적 크리스천, 2020대선 변수 될까?

〈1면에서 계속〉

종신직인 미 대법관의 특성을 이용해 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수십 년간 대법원의 보수화를 이끌 인물을 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정치성향과 그간 투표이력을 감안할 때 복음주의자들이 올해 대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퓨리서치센터는 "올해 대선에서 백인 복음주의자의 82%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들의 몰표가 2004년과 2016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대선 승자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4년 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보다 현재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더 크다.

독실한 가톨릭임을 강조하는 바이든 후보가 다른 민주당 정치인보다는 낙태 찬성에 소극적이며 가정의 가치를 중시해 복음주의자의 적대감이 덜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한편 최근 실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비율이 조 바이든 후보 지지 비율보다 약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약 61%로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약 29%)보다 월등히 높았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기타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은 약 2%였고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약 8%로 조사됐다.

복음주의 개신교인 10명 중 9명은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친 상태로 올해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종별 후보 지지율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는 비율은 약 73%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인 약 1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기타 인종 복음주의 개신교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비율이 약 58%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인 약 32%를 크게 앞질렀다. 하지만 흑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약 19%로 바이든 후보 지지율인 약 69%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4년 전의 경우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백인 유권자들이 비교적 많았던 반면 올해 대선에서는 뚜렷한 지지 성향을 보인 비율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했던 2016년 대선 직전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약 65% 지금보다 낮았던 반면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를 찍겠다는 비율은 당시 약 10%에서 약 18%로 높아졌다.

인종별 기독교인 중에서는 백인 기독교인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약 59%로 바이든 후보(약 30%)를 여전히 2배 가까이 앞섰지만 흑인 기독교인의 바이든 후보 지지율은 약 86%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약 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히스패닉 기독교인과 기타 인종 기독교인의 바이든 후보 지지율 역시 각각 약 58%와 약 49%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각각 약 36%, 약 36%)을 웃돌았다.

한편 대선 관련 이슈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유권자 중 대부분이 경제 여건 개선(약72%), 코로나19 확산방지(약58%), 국가안전(약55%) 등을 주요 관심 이슈로 꼽았다. 이 밖에도 인종 불평등(약49%), 이민 정책(약48%), 후보 개인성향(약48%) 등도 이번 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조사됐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 아닌 '교회'

〈2면에서 계속〉

새가족 교육을 온라인화 시켜라. 출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변명을 더 이상 늘어놓지 않도록 말이다. 새가족 교육이 온라인화 되면 사람들은 일주일 168시간 내내 언제든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도 온라인화 해라. 예를 들어 새들백교회(Saddleback Church)의 경우는 얼마전 40년 동안 현장중심으로만 진행되던 양 과정인 'CLASS 101-401'을 온라인화 하기도 했다(2020년 8월30일을 기점으로 온라인화 된 CLASS 101을 통해 600명의 새가족 등록 마침).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가? 다음 단계들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닌 '교회'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콘텐츠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대화와 공동체도 필요로 한다. 모임들이 현장에서 이뤄지든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든 교회 교인으로 이뤄지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이뤄지든, 그곳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온라인 모임을 위해 미리 신청을 받지 말자. 그런 방식은 사람들을 소리없이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대신에 그들이 익숙한 플랫폼에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초대하자. 새로 만들어지는 그룹들에게 나의 저서 "온라인상에서 소그룹 인도하기(Leading Online Small Groups)"를 제공하면, 모임을 시작하거나 기존에 있던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들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보다 훨씬 더 잘 대처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돌보고 봉사할 기회가 필요하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에게는 발산할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모험을 일삼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집에서 지내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은 사람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 혼자서 지내며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 해 전 한 저명한 정신과 의사 칼 메닝거(Karl Menninger) 박사는 한 컨퍼런스에서 청중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누군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하는 것이 좋을까요?" 청중은 메닝거 박사가 즉각적이고 강렬한 심리치료를 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신에 메닝거 박사는 대답했다. "나는 그들에게 선로의 반대편으로 가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할 것입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건강에 좋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지역사회에는 일손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음식을, 부모들은 보육을 필요로 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의 온라인 회중으로 하여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교회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격려하라.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교회와 성도여,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내자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코로나바이러스19 펜데믹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전체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펜데믹의 방역을 빌미로 현재 각 국가의 집권세력이 장악한 권력을 활용하여 초 헌법적인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와 심지어 성역시 되어 있는 신앙의 자유까지 억제하는 현상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이 전체주의는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킨다. 이미 지난 날 구소련을 필두로 한 동구 공산권과 제3세계의 저개발 국가를 통치하는 독재정권에서 이 전체주의 권력의 폐단이 입증된바가 있다. 이제 이것이 역사의 뒤안길로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이것이 다시 서서히 부활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코로나 펜데믹 방역을 빌미로 막강한 국가 권력 행사를 맛본 집권세력은 인간의 속성과 권력의 속성상 그 마력에서 헤어나기 어렵다. 그들은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세워 자신들이 누리는 국가 권력을 합리화하고 고착화시키려하기 때문이며 오늘날 전체주의 경향으로 흐르는 세계의 조류를 인식한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세계와 자국의 미래를 매우 불안해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전체주의 흐름을 어떻게 차단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인권과 그 자유 및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누릴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정치적 죄파들이 추구하는 전체주의 정치체제의 가장 강력한 도전세력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공존하거나 양립할 수 없다. 사회주의 공산체제가 종교를 아편으로 낙인찍고 특히 기독교를 말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현재 사회주의 공산체제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과 북한이 그들의 공산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그들의 정치체제에 맞는 가짜 기독교를 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음은 이를 더욱 입증해주고 있다.

물론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가 다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장악한 권력을 내놓지 않고 장기집권을 꾀하면서 그들의 권력욕에 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인 기독교를 말살하거나 변형시키는데 그 공동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권한 현 한국 집권세력이 전체주의 체제를 서서히 굳혀가면서 교회에 가하는 압박은 이를 잘 암시해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국민 모두가 아니라 자기편 국민만 보이고, 정의와 공정은 자기들의 이익에 합치하는 한 정의와 공정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헌법정신에 따른 정의와 공정은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 지독한 독재정치를 한다.

지혜로운 삶이란 문제를 미리 알고 그 대비책을 세워 이를 효율적으로 대비하여 미연에 해결해 버리는 삶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리들 앞으로 성큼 성큼 다가오는 전체주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들이 미연에 방지하여 신앙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면서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까? 각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세계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삶을 각 자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 및 직장과 사회에서 실천하면서 교회를 교회답게, 가정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으로, 직장과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성경과 일치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하고 지키면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모두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 굴복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고유한 정체성을 일반화시키거나 아예 무늬만 기독교이지 일반 세상의 여늬 종교와 문화와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실제적으로 주일 교회당 모임에서의 성도의 모습이 주일 이외의 다른 6일의 실제 생활영역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이들은 다른 비 성도들과의 차별화를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이번 코로나사태로 마치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양 오인하게 만드는 전체주의 지향 세력들의 정책과 선전 및 선동에 굴복한 수없이 많은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쉽게 만나게 된다. 특히 한국사회에 교회와 성도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다는 소리가 교회 내에서 공공연하게 들려진다. 이런 교회와 성도들은 도도히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전체주의 물결과 그 세력을 막아낼 수 없다. 예술인이나 요식업 종사자, 기타 많은 사업가들의 성공담을 들어보면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자기 색깔과 목소리를 내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나라 확장에 힘차게 동참하는 행복을 누리고 싶은가? 전체주의가 국가를 삼켜 이러한 기회를 빼앗아 버리기 전에 교회와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가치를 지키고 그 목소리를 힘차게 외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 전체주의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이를 목회자에게만 맡기고 의존해서는 안 된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힘차게 일어나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하나님나라로 변화시키는데 모든 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빌라델비아 장로교회(New York Philadelphia Presbyterian Church)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에 소속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목양하실
담임목회자를 청빙합니다.

1. 지원 자격
1)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대원(M. Div.)을 졸업하신 분
2) 목사안수 받으신 후 목회 경력(담임/ 부담임)이 있으신 분
3) KAPC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4)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미국 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5)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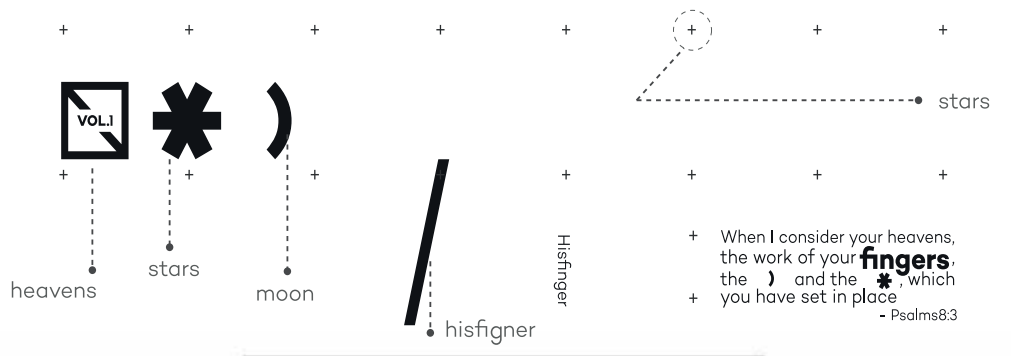
2.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영어 각 1부씩)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 추천서(목회자 2명)
5) 최근 설교 2편(동영상 또는 음성)
6)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소명) 및 가족 소개서
7) 목회 비전 및 목회 계획서

3. 제출방법
1) E-mail : sang78us@yahoo.com
2) 우편: 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 빌라델비아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영상 목사앞

4. 제출마감
1)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선정된 분께는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s8:3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유럽목회자세미나연구원 원장)

코로나를 통한 사고의 전환

우리는 지금 중세기의 역사적 상황을 다시 한 번 경험하고 있다. 책에서 보는 중세시대는 콜레라로 한 도시인구의 삼분지 일이 죽어나갔다고 한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은 말세라고 이구동성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경에도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지 일이 타버리고 수목의 삼분지 일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고(계8;7)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때는 이런 시련이 국지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현재 우리가 만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이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온 세계가 한 가지 문제로 공통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이로 인해 전 삶이 큰 영향을 받는 일은 이전에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물론 1, 2차 세계대전도 있었지만, 그것도 전쟁터에서는 심각한 일이었으나 각 나라에서는 지금처럼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코로나의 범람으로 시행하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한자리에 여러 사람이 합석하지 않기 등등의 규범들은 삶의 낭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다. 그 뿐인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때 쇼핑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상가는 수시로 폐업을 하고, 업종을 바꾸어 보지만 뾰쪽한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인간이 이룬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코로나바이러스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노력의 산물을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 마치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이 순식간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던 것처럼....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인터넷이나 신문은 요즈음 항상 첫 자리에 코로나 기사가 올라있다. 그리고 온 세계의 코로나의 상황을 매일 올리고 있다. 감염자, 사망자, 치료자 등등. 또한 실험실에서는 백신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유는 온 세계가 코로나라는 대상을 향해 공통적으로 대응하도록 말이다. 놀라운 것은 선진국에서는 간단하게 퇴치하거나 막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의학이 놀랍게 발전했다는 선진국이나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나 별 차이가 없다.

또는 코로나 감염은 유명인이나 무명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사정없이 달려들고 있다. 대통령, 수상, 왕세자, 배우, 운동선수, 지식인, 가수 등등 전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타자를 생각하게 되었다. 코로나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동질의식 말이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 지식인, 정치가, 인기인들에게 특별한 우대를 한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세상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회복되었을 때 코로나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의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선진국은 저개발 국가의 열악한 의료상황에서 대처하는 코로나사태에 대한 동정의식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상대의 생명도 존귀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야 말로 코로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닌가 한다.

1등을 결코 놓치지 않았던 길을 걸어온 연구원 박사가 하나님을 만났다. 네가 천국에 오면 내가 한 가지를 묻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느냐?" 고. 하루 세 시간만 자면서 죽어라고 공부한 그는 공부 외에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남은 생애에 논문을 100편을 쓰겠다고 했더니, 그 논문들은 천국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가? 쓸모없는 것만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코로나를 통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면 한다.

locielo88@naver.com

푸/른/초/장

양민석 목사
(뉴욕그레잇넥교회)

나는 누구인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요즘은 시대를 AC와 BC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After Corona, Before Corona, 나아가 WC까지도 말하게 되었습니다. With Corona.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으로 인해 우리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과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잘 헤쳐갈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집중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즉 요즘 같은 팬데믹의 혼란을 잘 헤쳐가기 위해서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신 차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 차림'이란 자기정체성 확립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 부모들이 자기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학교나 기관들 역시도 마찬가지요, 나라와 민족역시 각 요소에 있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문과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큰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다고 진단합니다. 쉽지 않은 대면예배모임, 교회의 사역정지, 성도들의 믿음약화, 헌금 감소와 운영, 무엇보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의 한계, 미래의 불투명성 등 혼란스러움이 계속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크리츠천과 교회공동체는 더욱 자기정체성을 찾아서 견고히 사명을 감당해 가야할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 대안은 먼저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과 거기에 맞는 대답을 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해주는 목회서신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놓은 에베소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에베소지역은 아데미 신전과 신상을 비롯하여, 우상숭배가 성행했던 도시요, 환락적이고, 쾌락적인 도시였습니다. 세속적인 사상이 팽배한 곳에서 교회를 지켜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몰려오는 영적장애들을 헤쳐 가며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켜가야 함은 쉽지 않은 사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바울은 안타까움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와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아줌으로 더욱 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본문은 질문형식으로 씌여져 있지는 않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내용 속에는 (사역자로서,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딤후2:1)"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강하고' 라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전히 약한 자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젊지만 영성이 깊은 사역자였습니다. 당시 에베소교회를 지도할 만큼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 자신이 먼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도록 만듭니다. 나는 누누인가? 약한 존재이다'라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해줍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바울은 답을 찾아갑니다. 약한 존재이기에 너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그 도움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 갖고는 역부족인 환경이 닥쳐오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내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세상으로부터 몰려올 때, 그것을 영적으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름 아닌 예수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사도바울 자신의 실존적인 경험을 갖고 또한, 현실적인 적용을 하면서 준 노하우였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매일매일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역부족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예수 안에 있는 은혜요, 그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빌4:13에서 바울은 네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한 존재이지만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더욱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와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유통자입니다.

(딤후2:2)"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디모데가 복음을 먼저 듣고 배우고 깨우침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철저히 복음을 전수해주어야 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 복음의 온전한 유통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복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사역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으로 강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은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흔들리는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주변으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안 되서, 일자리가 없어서, 돈 벌 길이 사라져서 힘들다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너무도 바쁘고, 수입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입니다. 특별히 인터넷 유통업체들은 전보다 더욱 많은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역을 다시 한번 점검할 힌트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적인 유통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시대는 심령 밭이 복음을 유통시키기에 더욱 잘 준비된 시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소망의 빛과 생명의 빛을 얻고 싶은 것이 위기시대의 심령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달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에서는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 대회를 치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일부여론도 있었지만,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 원색적인 복음, 더욱 강력한 복음이 전달되어야겠다고 확신하여 대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결과는 놀라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감동과 눈물이 충만했고, 비대면으로는 유례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회 후에도 계속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생 30명과 선교사들을 후원을 하게 되었고, 미주에 차세대 살리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 시대를 깨우는 복음의 유통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딤후2:3)"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고자 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적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전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엡2:2)"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벧전 5:8-9)"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환경, 사상, 정치, 경제, 코로나19 등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동성애를 비롯한, 도덕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흐름이 만연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LA쪽에서는 코로나 때 학생들의 성적인 건강을 위해 5가지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섹스팅하는 방법, 자위에 대한 것, 포르노사이트 보는 법, 홀로데이트, 온라인 섹스토이 다루는 것과 dirty talking 하는 방법. 참으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대적 마귀는 지금 우리 시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이런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럼, 군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와 직결되어있습니다. 딤후2:4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군인의 정체성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군인의 위치는 상관의 명령에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패는 바로 상관의 명령에 순응함으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에, 팬데믹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백성을 지켜가며, 온전한 진리를 사수하고, 피로 값 준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힘들고 혼란스런 시대를 맞이하여 영적지도자들과 성도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과 정체성확립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더욱 아름다운 교회공동체를 세워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lilyumc@hotmail.com

온라인상의 교회는 더 이상 ...

〈3면에서 계속〉

팬데믹 초기에, 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서로"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목록을 작성했었다. 스마트폰 사용량이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차피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말이다.

온라인상의 교회는 헌금해야 할 이유가 필요하다.

최근 NPR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바나 그룹(Barna Group)의 회장 데이비드 킨너맨(David Kinnama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기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사회의 일원들에게도 교회가 가져다주는 가치를 더욱 잘 보여줄 수 있어야겠지요."

위에 나열한 내용들 모두 당신의 온라인 회중에게 확실히 가치를 더해줄 것이지만, 더 나아가 교회들은 그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돕고 있는지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헌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결국 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건물이나 직원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사람들은 기부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너그럽게 나누는 것은 영적인 훈련이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표시다. 교인들이 성숙해짐에 따라 기부도 성숙해질 것이다.

결론

지금 교회들은 두 진영으로 흩어져 있다. 다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추고 코로나바이러스가 사그라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위험에 처한 교회들이다.

반면, 이러한 혼란을 끌어안음으로써 사람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현재의 사역들을 재평가하며, 디지털 사역을 위해 스스로의 위치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온라인상에서 길을 잃고 아픔 가운데 있으며 망가진 모습을 가진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존재한다.

당신의 교회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

필자 Allen White는 소그룹전략, 직원구조, 자원봉사자 동원, 그리고 영성형성과 같은 분야들에서 상담하고 연설하는 일을 한다. 알렌은 "기하급수적인 그룹들: 당신의 교회의 잠재력을 깨워라(Exponential Groups: Unleashing Your Church's Potential)"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http://allenwhite.org 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품격(品格)의 향기

-가치의 품격, 그리스도의 냄새

산수 같은 문제 앞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마음의 창을 태평양 쪽으로 열고 새벽마다 공예배마다 기도를 드린다. 기도의 책임을 느껴 모든 공적 대표기도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꼭 하도록 했다. 이처럼 사랑하는 조국이지만 신문과 뉴스는 거의 보지 않으려 무진장 애를 쓴다. 대부분이 정치적인 내용들로 물고 뜯고 싸우는 내용들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방해한다면, 굳이 영혼을 지저분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정치는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따라 공방을 펼치고 더불어 궁극적인 목적인 국민의 평안함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보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판 정치현실은 너무 뻔 한 이야기, 너무 속과 겉이 명확히 보이는 이야기임에도 덧칠에 덧칠을 반복하며 개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산수 같은 문제를 앞에 두고 왜 싸움을 하고 있나' 그렇게 표현한다. 산수 같은 문제도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나면 고등수학보다 더 어려워짐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삶 자체의 존귀함과 가치의 품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한번 두 번 하면 부끄러움을 가지겠지만 여러 번 자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인격을 형성하여 영적인 감각들을 잃어버림과 같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결과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이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파된 전염성과 함께 맞장구를 쳐준 주변 그룹들과 더불어 그러한 거짓을 용인한 공동체가 고스란히 상처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가치의 품격

NBC 방송이 개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사회를 본 앵커 '서배너 거스리'에 대해 언론이 호평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자의 질문을 뭉개거나 회피하면 집요하게 되묻는 거스리의 인터뷰를 놓고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거스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 등의 글을 리트윗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왜 그랬는지 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리트윗이었다. 누군가의 의견이었고 나는 별다른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나는 리트윗을 많이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거스리는 "당신은 대통령이다. 아무거나 리트윗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미친 삼촌(crazy uncle)'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자가 대통령에 대해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정치라고 하지만 사람이 가지는 마땅한 품격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말과 글과 행위가 그가 가진 가치의 품격을 증명하는 것인데, 정의롭고 당당하게 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선명하게 말한 것이다.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마지막 지지를 결정하지만 미국이 예전 같은 기독교적인 포용과 관용의 가치를 많이 상실한 것을 본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웃과 세계를 향한 따뜻한 나눔과 포용의 리더십이 미국의 품격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입장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교도의 신앙에 기반한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러한 나라를 세워가야 될 최고 지도자의 품격과 생각은 많은 안타까움을 준다.

사람의 품격과 그 향기

최근 한국의 신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하는 후배가 영상을 한편 보내왔다. 그와 나는 중, 고, 대학시절을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 특히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한해 후배로 뗄 레야 뗄 수 없는, 별걸 다 아는 그런 사이다. 그런데 이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보지 못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어간다. 그가 보낸 영상은 설교시간에 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사후 보고라며 보내준 것이다. 아련한 추억의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중고등학생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학생들답지 않게 아이어른들처럼 복음에 대해 뜨겁게 생각하고 나누던 말의 기억들을 소환해준 것이다. 감추어진 채 드러난 좋은 것만 포장해주어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너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다. 오래전 철부지들의 이야기들이면 훗날 중년의 인생에게 추억의 한 포맷이 되어 기억의 즐거움을 제공한 것이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주는 향기가 아주 찐하다.

소박함도 품격의 향기

그런데 그 향기가 누군가에게는 악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게 된다. 지금 나의 말과 행동들이 현재를 포함해 미래 그 언젠가 나의 품격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테니 말이다. 사람이 갖는 품격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냄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주 소박하지만 좋은 냄새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옮겨본다. 강원도 영월을 배경으로 고향 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감자 심포니'라는 영화를 만든 전용택 감독과 관련된 에피소드이다.

-1985년, 전용택이 연세대학교 불문과에 입학하고 3월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선배와 용택은 선후배들과 어울리다가 오밤중에 둘이서만 신촌 어느 놀이터에 남게 된다. 둘은 무척 배가 고팠다. 선배는 돈이 한 푼도 없고 용택에게는 순댓국 한 그릇 사 먹을 돈이 있었다. 용택은 식당에 들어가 순댓국 한 그릇을 시킨다. 용택이 묻는다. "형, 안 먹나?" 선배가 대답한다. "괜찮다. 너 먹어라" 선배는 한 번 더 권할 줄 알고 아니라고 했는데, 용택은 더 권하지 않고 혼자 그 한 그릇을 다 먹는다. 선배는 그날 그때 일을 이렇게 '기억'한다. 나는 한 번 더 권할 줄 알고 아니라고 했는데, 깔끔한 용택군은 더 권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 먹고 싶었지만 아니라고 했기에 억지로 참았다. 사실 숟갈을 들이대고 같이 먹어야 했지만 지금도 고질인 자기 욕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습성, 1년 선배라는 위치, 내가 뱉은 말을 책임져야 하는 그 무익한 의무감, 뭐 그런 걸로 인해 찾아온 그때의 배고픔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용택군은 그처럼 나의 허기의 기억과 함께하는 존재이다(2010년 4월 6일 이남호).

선후배간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소박한 품격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선배는 후배의 욕심(?)을 깔끔함이라고 표현하며, 후배 탓이 아닌 자기 책임으로 말한다. 더불어 그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선배라는 위치, 뱉은 말에 책임지려는 의무감' 등을 곱씹어 본다. 스물, 스물한살 어린 나이에 선후배간에 한 살 차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배려의 따뜻함을 본다. 이것이 그의 삶의 품격이 되고, 그것이 인격의 향기가 된 것이다. 국민생각은 없고 오로지 권력을 위해 검고 흰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결코 찾을 수 없는 품격의 향기이다.

100세의 품격-작고 사소함

100세의 품격을 살고 계시는 김형석 교수의 말이다. '30-40대에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면서 살았다. 50부터 80까지는 선과 악의 가치를 가리면서 지냈다. 최근에는 추한 것을 멀리하고 아름다운 여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곤 한다. 옷차림은 그 작은 한 가지일 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20년 전부터 멋지게 입고 다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혼자 웃었다.'

100세 인생을 살면서 그가 생각하는 향기 나는 인생의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님을 증거 하는 말이다. 환언하면 욕심대로, 누릴 만한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품격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옷 입는 것 한 가지라도, 말씨와 웃음소리 하나를 통해서도, 아주 작은 것 한가지씩부터 무례함과 천박함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 가야 한다.

과거의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좋다.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가 있었고 품격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영원한 세상에 잇대어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세상을 흉내 내고 카피하려든다. 어린 시절 교회 어른들의 모습은 참 좋았다. 그런 교회를 꿈꾸게 하였다. 지금처럼 좋은 차도 집도 없었는데 늘 이를 드러내고 환하게 웃었고, 나누는 대화의 언어들도 달랐다. 늘 감사, 늘 웃음, 늘 기쁨과 찬양이었다. 식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칼국수를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고 아이를 둘 셋 업고 안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와 성도됨의 감격을 누렸다.

그러나 지금은 손에 든 작은 전화기 하나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졌다. 거칠고 사나와졌다. 교회보다 법정의 재판관과 변호사가 훨씬 더 의지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곧장 손과 발의 행동으로 나타낸다. 아주 좋지 않은 냄새를 풍긴다.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뿜어내지 못함으로 삶에서 누릴 아무런 감격도 없고 공동체에 끼칠 선한 영향력도 부재한 향기 없고 품격 없는 인생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 가을에 자신의 영혼과 대면하고 대화하기를 권한다. 기도하기 어려우면 많이 걸어보는 것도 좋으리라 여겨진다. 걷고 걷다 보면 많은 생각이 오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내 상념에 젖어들면서 참 좋았던 기억의 향기들이 투명하게 떠오르는 시간이 찾아올 것이다. 자신의 삶에 무엇이 그토록 소중한가를 돌아보며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시간이 깊어질수록 마침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격으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성경을 읽을 때 늘 가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그리스도로 묘사되고 어떤 때는 인자와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명칭으로 쓰여졌는데 그 이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로미타의 권영화 장로

A: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학적으로 신약신학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메시아)란 명칭의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칭호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 이름은 항상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행위)과 함께 쓰입니다. 구원의 사건(the saving event)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수반되며 이 단어는 항상 믿음(faith)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되어 사용이 됩니다. 김세윤 박사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란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자유와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줄 정치적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는 다윗왕조를 재건하지도 않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행위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구원사건과 연결, 주-종말론적 심판자로 하나님의 아들-부활 예수, 인자-종말론적 구원자

둘째, 주(Lord)란 단어는 부활하여 높임을 받은 자로 하늘과 땅의 대권(大權)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주는 부활하여 높임을 받으신 이름으로 빌립보서 2:9-11절에 나오는데 그는 종말론적인 심판자입니다. 주님은 종말에 오시고 성만찬에 오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난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빌4:2).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신성이 함축되어 있고 부활한 예수에게 주어집니다(롬1:4참조). 하나님의 아들의 칭호는 하나님의 초월성(Transcendent of God)과 내재성(Imminent of God)을 동시에 천명하고자 하는 언어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자이십니다.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고장 난 우리인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초월자라 하셔도 하늘 꼭대기에만 고고히 계시기만 하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인자(the Son of Man)입니다. 전통적으로 인자는 신약신학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시는 용어였다고 봅니다. 이 인자는 구약 다니엘서 7;13절에 근거한 것으로 인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간성을 인자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용어는 이 땅의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하늘나라의 형상으로서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난 구원자입니다.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르키나파소의 송하이(Songhai)

서부아프리카 중부 1백50만 송하이족 가운데 13만7천명이 부르키나파소에 산다. 그들은 부르키나파소 북서부 지역 니제르 국경 부근에 살고 있다. 더러는 물과 식물이 희귀한 사막 가까이 살기도 한다. 나이지리아, 니제르 그리고 말리 등의 주변 국가들에도 상당히 큰 송하이족 공동체들이 발견되며, 베닌에도 소수의 송하이족이 산다.

송하이족의 기원은 8세기 무렵의 자아(Za)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슬람은 일찍이 1010년경에 전파되었는데, 이 초기 이슬람은 송하이족이 본래 가졌던 강, 토지 그리고 야생동물들에 대한 정령숭배 신앙과 접목됐다. 자아(Za) 왕조는 16세기 말 모로코의 술탄이 서부아프리카를 정복할 때까지 지속됐다.

송하이족 대부분이 무슬림이며, 따라서 부르키나파소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무슬림들이다. 리비아와 정치적으로 강력한 연관들을 가진 것이 무슬림들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켰다.

삶의 모습

송하이족의 거주지는 대체로 진흙 또는 풀로 원형의 벽을 둘러치고 밀짚 지붕을 얹은 가옥들로 구성돼있다. 오늘날은 골진 양철지붕을 얹은 장방형의 흙벽돌집을 짓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니제르 강 유역의 송하이족 거주지는 넓은 논과 채마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강에서 떨어진 마을들은 작은 숲들과 개간된 경작지들로 둘러싸여 있다. 주로 광저기(?), 땅콩 그리고 카사바 등을 재배하며, 6월부터 9월까지의 짧은 우기철에는 수수농사를 짓기도 한다. 송하이족에게 농사는 고상한 노동으로서 오직 남자들만 하는 일로 간주된다. 여자들은 집에 딸린 정원에서 무더운 건기철에 망고, 구아바, 감귤, 파파야, 대추 그리고 바나나 등을 재배한다.

마을공동체는 모든 남자들이 공통된 남성 조상을 가진 부계혈족 사회다. 송하이족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 장남으로 하여금 삼촌의 딸과 결혼하도록 한다. 남자들은 20대 후반에 결혼하나 여자들은 10대 초반에 결혼하며, 결혼을 늦게 하건 빠르게 하건 모든 자녀들은 남편의 가계에 속한다. 이슬람법이 한 남자가 네 명의 아내까지 거느리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송하이 남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아내를 한 사람만 갖는다. 하나 이상의 아내가 있을 때는 모든 아내들은 확대가족의 컴파운드 안에서 각각 독립된 거처를 갖고 산다.

신앙

송하이족은 거의 대부분 무슬림이다. 그러나 비록 이슬람이 송하이 문화에 새로운 국면을 소개하기는 했으나 풍습과 전통의 근저를 이루는 그들 문화의 하부구조는 근본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 모든 부락들에 모스크, 적어도 금요일 모스크가 있고, 어떤 공동체들은 이슬람 철학을 가르치는 '이맘'(종교지도자)이 있으며, 무슬림 축제들이 자주 행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표면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정령숭배, 마술, 주술, 조상숭배 그리고 점성술 등이 송하이 신앙의 중요한 일면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마을들에는 악령에 홀린 무리들(possession troops), 주술 치료사들 그리고 무당들이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신내림(spirit possession) 의식이 한 주일에 한번 꼴로 시행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genji gi hori"(송하이 사람들이 역병을 다스린다고 믿는 검은 영들 'black spirits'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식)와 "yenaandi"(rain dance, 비를 내리게 하는 춤)이다. 두 가지 의식 모두 건기에 행해진다. "마라보"(이슬람 성자들)들은 공동체 기도를 주도하는 한편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하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일반적으로 송하이 사람들은 가뭄의 시기를 제외하면 단순하지만 풍족한 삶을 영위한다. 그러나 가뭄이 정기적으로 오므로 많은 고아가 생기며 이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다. 부르키나파소는 서부아프리카에서 우상숭배와 비밀사회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현재 송하이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은 거의 없다.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한 번도 분명한 복음 제시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성경적 정치인 선별 돕는 웹사이트 개설

미국의 성서적 가치 회복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솔트앤드라이트협의회(Salt & Light Council)가 최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유권자들이 자신의 견해와 맞는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성서 유권자(Biblical Voter)'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이 사이트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플랫폼을 대조하여, 선거 비디오, 후보 질문지, 의회 점수표를 보여줌으로써 교회들과 목회자에게 후보자를 선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솔트앤드라이트협의회 드란 리스(Dran Reese) 회장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목회자들이 성경적 투표를 하지 않고 교회의 다른 사역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 정부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성경적 가치로 투표하는 법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스 회장은 "나는 이것이 미국에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적으로 투표하는 법을 모른다"면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들의 지속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50개 주의 '반낙태', '보수주의', '독립단체'에 속한 유권자를 위한 안내서를 모아, 후보를 신앙이 아닌 개인적 취향에 따라 선택하기 쉬운, 투표 막바지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이트가 제공하는 중요한 자원은 '성경적 유권자 등록 세트', '초당파 유권자 안내서 모음'과 '목회자들을 위한 전용 자원' 등이 있다.

이 사이트가 민주당과 공화당 플랫폼을 비교한 '61가지 차이점 목록'을 분석한 결과, 공화당 플랫폼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앙 관련 단어들은 대부분 민주당 플랫폼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 플랫폼에는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언급하지 않고, 낙태를 지지하며, 종교의 자유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등의 차이를 보인다.

북한, 미결수 인권유린 심각…

북한에서 미결수에 대한 학대와 고문, 성폭행이 자행되는 등 인권유린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19일 발간한 보고서 '북한 미결구금시설에서의 가혹 행위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가 자의적이며 절차적 정당성도 부재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한 전직 보안원(우리의 경찰 격)은 "수사와 예심 초기 단계에서 자백을 받아내야 한다"며 "규정에는 (미결수를)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때린다"고 증언했다. 이 보안원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도 나중에 범죄를 부인하거나 예심원한테 다시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미쳤구나' 하면서 구금자를 때린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또 구금시설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강간이 자행되고 있다는 탈북민의 증언도 실렸다. 함경북도에서 장사하다 2015년 탈북한 50대 여성 김모씨는 "구류장에서 담당 보위성 심문관에게 강간을 당했고, 또 다른 보안원이 심문하면서 몸을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운명이 그들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기독교인의 경우 다른 미결수보다 더욱 심한 가혹 행위를 당하고 있다. 함경북도에서 한약재를 밀수하다 2017년 북한을 빠져나온 30대 남성 김모씨는 "2000년 처음 밀수죄로 한 달간 보위성 시설에 갇혔는데, 조사를 받을 때마다 맞았다"며 "중국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과의 연계를 의심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김씨는 "기독교인은 중대한 정치 사건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타와 가혹 행위가 더욱 심했다"고 주장했다.

구금시설 위생 및 식량 문제도 심각했다. 보고서는 "모든 구금 경험자들은 구류장에서 비누와 옷, 이불 등 기본 물품을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충분한 냉난방이나 수도시설이 없어 제대로 씻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구금됐던 20대 탈북민 남성 박모씨는 "하루에 세 끼를 주는데, 으깨서 삶은 옥수수 조금 하고 콩 70g 정도를 주면서 '콩이 영양가가 높아서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오는 음식만 먹고는 살 수가 없었다. 항상 배가 고팠다"고 했다.

보고서는 "(수감자가) 뇌물과 연줄이 있으면 혐의를 묵인하거나 축소하고, 수감 처우와 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사건을 완전히 기각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말 밀수 혐의로 구금된 40대 여성 임모씨는 노동당 중간급 당원인 남편의 인맥 덕에 구금 10일 만에 석방될 수 있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에 독립적이며 공정한 사법부를 수립하고 노동당과 최고지도자의 권력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법률과 헌법, 제도를 개혁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구금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성폭력 등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처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미국인의 한국 호감도 역대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안보·무역 문제에 대해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외교분야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아 7월 2-19일 미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0점(100점 만점)이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CCGA는 미국인들에 대해 외교정책을 묻는 연례 여론조사를 1978년에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담당한 칼 프리도프 CCGA 연구원은 "한국의 성공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K팝의 인기,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인 응답자의 21%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밝혔고, 26%는 '효과적이었다'고 답했다. 미국인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었다고 긍정 평가를 내린 것이다. CCGA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는 미국(37%), 중국(37%)에 비해 높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인들의 74%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답했으며, 68%는 한국이 미국과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이 한국을 방어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58%를 기록했다.

남한, 북한,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인들의 호감도를 비교하면, 일본이 65점으로 가장 높았다. 중국은 32점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19점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미국인들의 비율은 51%로 이 문항이 조사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CCGA는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017년 북한의 핵무기가 중대한 위협이라고 답했던 미국인들의 비율이 최고점인 75%를 기록했었다고 설명했다.

협상을 통한 북핵 폐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로 매우 낮았다. 83%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북한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찬성한다'는 비율도 29%를 기록하며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낮았다고 CCGA는 밝혔다. 미군을 보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도 24%로 조사 이후 최저를 나타냈다.

"소녀상은 연대의 상징"…독일교회 '수호' 나서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도에 독일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독일개신교교회협의회(EKD)는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에 각각 서신을 보내 "동상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여성위원회는 EKD 에큐메니컬 총괄 담당 페트라 보세 후버 감독이 미카엘 뮐러 베를린 시장과 슈테판 폰 다쎌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편지를 18일 공개했다. 후버 감독은 "독일 개혁교회들에 이 소녀상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면서 "전 세계 많은 분쟁 지역에서 성노예로 희생된 여성들과 이로 인해 여전히 고통당하는 여성들과의 연대와 기억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후버 감독은 독일의 과거사 반성과 평화의 소녀상 설치가 같은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 히틀러 시대에 자행된 잔혹 행위의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이미 세계 곳곳에 세워진 청동 소녀상이 수도인 베를린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소녀상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이런 불의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소녀상 철거 시도에 대한 당국의 진의를 거듭 물었다.

한인 단체인 코리아협의회는 지난달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독일 공공장소에선 처음으로 소녀상을 설치했지만, 일본 측 항의를 접수한 미테구청이 지난 14일까지 소녀상의 자진철거를 요청했다가 각계의 반발로 철회했다. 미테구청은 "법원이 소녀상 철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를 할 때까지 당분간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 "성경공부, 모든 면에 영향 미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신의 신앙여정 및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위한 방법, 국정을 수행하는 데 신앙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언급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고등학교 때 신앙은 주일학교가 전부였다"며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 육군사관학교 신입생이었던 18-19살 무렵부터 예수님과 진지하게 동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도 몇 명이 성경연구 모임을 소개해줬고, 이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모임에 대해 "매주일 이른 오후에 모였다. 15명을 넘지 않았고, 신입생은 10-12명이었다. 우리는 교제했고, 성경을 읽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진지하게 숙고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그로부터 40년이 지났다…. 그 모임은 수잔과의 결혼, 아들 닉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것, 군인, 소규모 사업가, 현재 국무장관으로서 임무 수행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쳤다. 그 모임은 인간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장관으로서 바쁜 일정 속에 신앙을 어떻게 챙기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꽤 훈련을 받았지만, 지난 1년 반 또는 2년간 교회 출석이 어렵기도 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장기간 열리지 않아 수잔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였을 때도 바빴지만, 제가 가본 모든 장소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10-15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신앙서적이나 글을 읽거나 성경을 보고 잠시 기도하기도 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이 같은 순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이해를 떠올리는 순간"이라고 했다.

'노골적으로 종교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 믿음 때문에 저를 비난하는 이들이 있다.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역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항상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방식,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내게는 헌법 수호가 제1원칙이지만, 항상 건국의 아버지처럼 인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고 말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전쟁과 관련, "중국 공산당은 그들이 발견한 모든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인류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발생하는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때, 더 나은 국가가 되고 더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한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히려 했고, 이에 대해 말해왔다. 우리는 기본적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잘 지키지 못하는 국가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잘 지키는 국가들은 칭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08. 우남 이승만(1875-1965)

1916년 하와이 한인기독교회 설교자로 사역, 교회건축 앞장 서
1919년 예수교국 건설 발표, 광복까지 워싱턴DC에서 독립운동

이승만(李承晩)은 고종 12년인 1875년 3월 26일에 황해도 평산군 마산면 대경리 능내동에서 양녕대군 16대손으로 이경선과 김해 김씨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초명은 이승룡(李承龍), 호는 우남(雩南)이다. 그는 1877년에 서울로 이주하여 도동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했고, 독실한 불교신자로서 한문 소양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유교의 도리를 배웠으며, 생일에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렸다. 그는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는데 과거제도가 폐지되던 이듬해인 1895년 봄에 신흥우의 형인 신긍우의 권유로 배재대학의 영문부에 입학하여 1897년 7월에 졸업하기까지 영어공부에 매진했고, 제중원 여의사 조지아나 E. 화이트 박사로부터 영어회화를 배웠다. 특별히 1895년에 귀국한 서재필의 세계역사, 민주주의, 국제 정세, 지리 등의 강연에서 그는 새로운 혁명적 기독교 사상에 눈떴다.

우남과 프란체스카

크리스천

고종황제 폐위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우남이 1899년 1월에 한성감옥에 수감됐는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탈옥미수로 종신형을 선고받아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중생을 체험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학교시절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평생 처음으로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렸다.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나는 변한 사람이 되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생한 우남은 40여 명의 죄수에게 전도하였고, 독립협회에서 활동했던 이상재 등 양반 지식인과 성경공부와 신학연구에 몰두하였으며, 1902년 12월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50여 명에게 한글, 한문, 영어, 산학, 국사, 지리뿐만 아니라 성경과 찬송가도 가르쳤다. 그는 1903년 8월호 신학월보에 기고한 "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와 1904년에 쓴 '독립정신'에서 기독교에 기초한 독립국가 건설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우남이 석방된 지 2달이 되던 1904년 10월에 상동 감리교회 청년학원 교장직을 맡았는데 11월에 민영환과 한규설의 주선으로 한국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 도미했다. 도미하는 길에 하와이에서 호놀룰루 한인감리교 선교회의 홍승하 전도사와 윤병구 목사 등을 만났다.

선교사들이 쓴 19장의 추천서를 들고 우남이 워싱턴DC에서 영향력을 가진 커버넌트장로교회 루이스 T. 햄린 목사를 찾았다. 햄린 목사의 주선으로 1905년 2월 배재학당의 학점을 일정 부분 인정받고 목회장학금을 받아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 진학했고, 그해 4월 20일에 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재학 중 그는 구약언어학 과목을 둘이나 수강했고, 뉴잉글랜드의 국제기독학생모임에 참석했으며, 1906년 여름방학 때 매사추세츠주 노스필드에서 3000여 명이 모인 만국 기독교 대학생 선교대회에도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강단에 올라가 "독립가를 창하고 대한제국 만만세와 아메리카 만만세를 세 차례씩 창하였다." 그런데 그는 미국 상원의원 휴 딘스모어와 국무장관 존 헤이에 이어 루스벨트 대통령과도 면담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07년에 워싱턴대학을 졸업한 우남은 그해 하버드대학원에 입학하였고, 인근 엡워스 감리교회에 출석했다. 1908년 3월에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개최한 미국 및 캐나다 청년선교운동 콘퍼런스에 한국대표로 참석하여 한국 선교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였다. 하버드대학원에서 1년 동안 공부한 후 프린스턴대학원에 입학한 그는 박사학위 공부를 하기 전에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히브리어, 라틴어, 교회사, 변증학 등을 공부했다. 그는 2년만인 1910년 6월에 '미국의 영향 하의 중립론'(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감리교 평신도 전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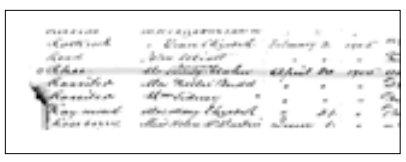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총무 필립 길레트 선교사의 초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1910년 10월에 우남이 귀국하여 연봉 900달러의 한국인 총무나 학감으로 취직했으니 도미한 지 5년11개월 6일 만에 귀국했다. 그해 10월 16일에 570명이 모인 학생집회에서 전도 강연을 하였고, 이 강연을 통하여 143명의 연경반을 조직하고 매주일 오후에 성경연구반을 인도했고, 서울 YMCA에서 성경과 만국공법을 가르쳤으며, 프랑크 M. 브로크만 협동총무와 전국을 다니며 전도하고 YMCA를 조직했다.

그런데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의 압박을 받자 1912년 4월에 감리교회 평신도 제14기 회의에서 미국 미네소타에서 개최하는 미국 기독교 감리회 4년 총회에 한국 평신도대표로 참석한다는 빌미로 도미하였다. 도미하는 길에 일본을 들러 카미쿠라에서 열린 한인 학생대회에 참가하여 26명으로 학생복음회를 발족시켰다.

미네소타 총회 이듬해인 1913년 2월에 한인 동포가 많이 집결한 하와이에서 장기적인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해 박용만의 초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의 첫 사역은 105인 사건의 실상을 다룬 '한국교회 핍박'의 집필이었다. 그 후 그는 순 한글 월간 '태평양 잡지'를 통해 기독교 신앙과 애국과 독립사상을 고취했으며, 미국 감리교 선교부가 설립한 한인기숙학교(한인중앙학원)의 교장직을 맡아 한인 2세에게 영어, 우리말, 한문,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도 가르쳤다.

그리고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의 탁사와 교육책임자로 활동했고, 목회자 공백 기간에 주일예배 설교를 맡았는데 공백기간이 자주 있고 길어지면서 교인들과 친숙해졌다. 감리교 하와이 지방회의 교육분과 위원장직도 맡아 한인감리교회의 업무에 관여했다. 김유순 목사의 귀국으로 어려워진 와이파후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1914년 8월 박용만이 조직한 대조선 국민군단의 병학교 막사 군문 낙성식에 참석하여 우남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한국어와 한국사 등의 과목 설치와 여학생 교육 문제에서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우남은 1915년 6월에 본 선교부에서 탈퇴했다. 그는 1916년에 한인여자학원을 설립했고, 2년 후 이 학교는 남녀공학의 한인기독학원으로 변신하여 소학교 6년 과정을 운영했다. 우남은 매일 드리는 본 학원의 채플시간에 설교를 도맡아 했다. 1952년에 토지와 재산을 매각하여 인천 인하공과대학 설립 기금으로 내놓았다.



우남의 세례 명부 (위에서 넷째 줄)

한인기독교회 설교자

우남은 1916년부터 박내선/박애나 부부 가정에서 김해나, 유노덕, 김(이)유실과 이유실의 어머니 송경신, 백락현, 김성기, 윤계상을 포함하여 약 30명 교인과의 친교 모임을 계속하다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모이는 수가 7, 80명이 되어 새로 새워진 교회 곧 '신립교회'가 된 셈이고 또 그렇게 불렀다.

1917년 초에는 참석 교인수가 너무 많아 한인여학원에서 모였다. 그해 7월에 평신도 중심의 미국 회중 교회의 모범을 따라 신립교회를 창립했다. 1918년 12월 23일에 호놀룰루와 와히아와, 카우아이 섬, 마우이 섬, 그리고 하와이 섬의 여러 지방 교회 대표 14명이 모여 한인기독교회가 되었다.

지방대표는 우남, 윤계상, 신성일, 송경신, 이누신다, 박영기, 이종관, 임평순, 장재현, 박원백, 김경준, 노성현, 조석진, 고성준이었다. 이즈음 200여 명이 모였는데 초대 목회자로 사병춘(사병순?) 목사가 부임했고, 본 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와의 협력과 불신자의 전도를 강조하였다. 우남은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이사원에서 선교부장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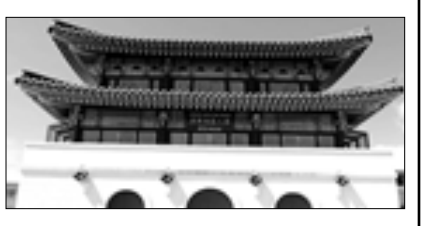
1922년에 작은 예배당을 마련하였다가 예배 출석수가 많아 10년 동안 신흥국어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38년 4월에 우남의 주장으로 경복궁의 광화문 문루를 가미한 4만여 달러의 건축비로 예배당을 세웠다.

여러 섬에 있는 한인기독교회를 총칭한 '중앙한인기독교회'는 1924년에 '중앙한인기독교회 조합'이 되었다가 1931년에 '한인선교부'가 되었다. 1938년에는 총 세례 교인수가 1,263명이었다.

1919년에 워싱턴DC로 간 우남이 1925년경에 다시 하와이로 이주했다. 오스트리아 빈 출생의 프란체스카 도너와 1934년 재혼한 후 하와이로 돌아온 첫해에 그는 매달 평균 2번 설교하였다. 1936년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 영어예배에 그가 설교했고, 대부분 노인이 참석하던 오후 7시 30분 주일저녁 예배에서도 그가 설교했다.

예수교국

우남은 1919년 4월에 서울에서 선포된 속칭 한성정부의 집정관 총재로 선임된 후에 한국으로 동양의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9월 상해 임시정부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된 후 그는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구미주차한국위원회'(구미위원부)를 세우고 1925년까지 조국의 외교 독립운동을 폈다. 중일전쟁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1939년 3월에 워싱턴DC에 구미위원부를 다시 열고, 재미교포단체인 해외한족대회와 상해 임정 외교위원장 자격으로 임정 승인 획득과 한국 독립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광복 두 달 만인 10월, 33년 만에 우남이 귀국했다. 1948년 5월에 서울 동대문구 국회의원이 될 즈음 그는 '방구명신'이라는 휘호를 남겼다. '나라는 오래지만, 명은 새롭다'인데, '명'이란 기독교적인 새로운 하늘의 명이었다. 1948년 5월 31일에 제1대 제헌 국회 임시의장으로 개원하면서 목사 이윤영 의원에게 개회기도를 요청하였다. 그해 8월 15일에 대한민국 탄생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그는 제1, 2, 3대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1960년 4월 19일 학생의거 후 그달 26일에 대통령 하야성명을 발표한 후 하와이로 이주하여 1965년 7월 19일에 향년 90세에 소천하여 서울 현충원에 안장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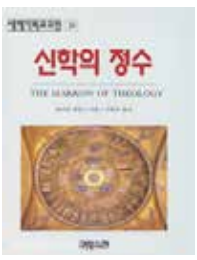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28)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의 "신학의 정수(A Marrow of Theology)" (1)

목회자 필독서로 학문적 외 일반성도 학생의 유용한 개론서
신학적 점검 목록 이상, 신앙적 깊이 갖고 응답해주는 저서

들어가며-"신학의 정수"의 위치

필자가 청교도 신학의 강의 준비를 하면서 감명 있게 읽었던 세계 고전 중의 하나인 "신학의 정수"는 청교도적 신앙과 생활의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표현으로서 지금까지도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세계적인 고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에임스의 책 "신학정수"와 더불어, 그 책을 요약하고 평가한 켈리 카픽(Kelly M. Kapic)과 랜들 글리슨(Randall C. Gleason)의 "청교도 고전으로의 초대", 그리고 조엘 비키(Joel Beeke)와 마크 존스(Mark Jones)의 "청교도의 모든 것"을 참조하여 글을 전개하였다.

영국, 화란 그리고 뉴잉글랜드에서 청교도의 방식을 열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본서를 탐독하였으며 화란이나 미국에서 신학에 접하는 모든 학생들, 특히 임마누엘대학, 라이든대학, 하버드대학, 예일대학 학부생들은 신학개론의 일환으로 라틴어본 "신학의 정수"를 읽어야 했다.

청교도인 하트포드(Hartford)의 토머스 후커(Thomas Hooker, 1586-1647)는 목회자들에게 매우 열정적으로 에임스의 "신학의 정수"를 추천하면서 "다른 저서들을 전혀 소장하지 못하고 본서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본서는 능히 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717년 코튼 매더(Cotton Mather)는 임직식 설교에서 목사들의 필독서로 오직 "신학의 정수"만을 추천했다. 현존하는 영역본은 아마도 19세기에 인쇄된 역본으로서, 본서가 17세기 초엽에 저술된 라틴어 저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본서의 광범위한 독서계층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를 학문적인 논문으로서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과 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개론서로 저술했다. 본서는 두 권으로 구분되며 각 장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초신자도 특정한 신앙내용의 항목에 대하여 에임스의 답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또한 본서는 신학적인 점검을 위한 목록 이상, 신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응답해주는 깊이가 있는 저서이다.

I. 저자 에임스(William Ames)의 생애와 배경

1. 캐임브리지 대학, 크라이스트 칼리지(Christ College in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윌리엄 에임스(William Ames)는 1576년 영국 서포크에 있는 입스위치에서 태어났다. 이곳은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가 도입한 강건파 청교도 운동의 중심지였다. 에임스의 아버지는 청교도에 동조적인 부유한 상인이었고, 어머니 조안 스넬링의 친척은 뉴잉글랜드에서 플리머스 식민지(Plymouth Colony, 1620-1691 Massachusetts) 건설에 공헌한 가정이었다. 그의 어린시절에 부모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청교도인 외삼촌 로버트 스넬링의 집에서 양육 받았다.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시대와 지역의 활력적인 청교도 운동에 발을 딛고 살았다. 외삼촌은 그를 1593년에 케임브리지대학의 크라이스트 칼리지에 입학시켰다. 에임스는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위해 자연적으로 옥스퍼드대학 대신에, 당시 청교도 학문의 중심지였던 케임브리지대학을 선택하였다.

이 대학은 청교도 지도자들인 토머스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 1535-1594),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1602), 존 프레스톤(John Preston, 1587-1628)과 같은 대가들이 설교와 가르침에 의해 주도되었던 학교였다. 이 학교는 순수한 청교도 운동과 라무스(Petrus Ramus, 1515-1572, 프랑스 논리학자, 자연학자 인문주의자)의 철학으로 유명했다.

에임스는 완벽한 학문의 자질을 가졌고, 1601년 문학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특별연구원으로 임명되었다. 목사안수를 받고 '경험적 청교도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암 퍼킨스의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극적으로 회심을 체험했다. 그의 깊은 영적 변화는 크라이스트 칼리지의 도덕적 나침반과 양심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청교도로서 케임브리지에서의 역할

청교도 교수로서 에임스는 늘 학생들에게 죄에 대해 경고했고,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과 경건을 갖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무감에서 자신을 에스겔의 파수군(겔33장)과 같은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역할은 오래가지 못했다. 1604년 제임스 1세(James Charles Stuart, James VI of Scotland, 1566-1625)의 관용령에 대응하여 개최된 햄프턴 궁전 회담(Hampton Court Palace)으로 영국 국교회를 비판하는 대학들의 청교도 활동이 억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대학의 청교도 일파는 엘리자베스 여왕(1533-1603)의 종교적 타협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계속했다. 여왕의 칙령에 대한 이런 반발로 인해, 청교도 대변자들은 곧 직위를 박탈당하고 해고되었다.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청교도운동을 매우 싫어한 케리(Carey)는 에임스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있었으나 그가 먼저 학장이 되었다.

에임스가 영국 국교회를 비난하고 성의 착용을 거절하자 국교회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1609년 에임스가 도박을 비판한 설교를 한 후에 대학 당국은 그를 구금하고 직위를 중지시켰다.

3. 네덜란드에서 역할과 책의 발간 요인

1610년 에임스는 영국을 떠나 화란의 학교와 교회가 갖고 있는 더 자유로운 풍토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에임스는 먼저 로테르담으로 가서 라이덴(Leiden)에서 회중교회를 섬기고 있던 청교도 분리주의자 존 로빈슨(John Robinson) 목사를 만났다. 로빈슨 목사를 지지하던 호레시오 베레 대령을 통해 헤이그에 주둔한 영국군의 군목으로 선임되었다. 여기서 그는 교회를 위기에 빠뜨릴 알미니우스에 반대하는 많은 글들을 쓰기 시작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미니안주의로 인한 위기 때문에 도르드레흐트(Dort, Dordrecht)에서 국제총회가 개최되었다(1618-1619). 알미니안주의와의 싸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처할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었던 에임스는 영국인으로서 의결권이 없었지만 의장인 요한네스 보게르만의 신학고문 겸 비서로 도르트 총회에 참가했다.

도르트 총회의 회원들은 알미니안주의들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해 역사적인 칼빈주의 입장을 지지했고 에임스에게는 이것이 큰 기쁨이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도르트 총회가 개최된 후로 3년 동안 그는 개인교수와 가정교사로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잠시 개인적으로 가정대학(House Collegge)을 운영하기도 했다. 신학생들은 에임스의 집에서 살았고, 그는 그들에게 청교도 운동과 페트루스 라무스의 논리학에 입각한 신학을 가르쳤다. 에임스는 나중에 하우스칼리지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그의 저술로 연결시켰는데, 이때 했던 강의의 일부가 바로 유명한 "신학의 정수"의 모체가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사랑이시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가르치고 배우지만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다르다. 나는 정말 죽음으로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눈동자를 보았는가?

에덴을 떠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존재였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무가치한 마음과 두려움과 버림받은 마음, 상처 쓴 뿌리들로 범벅되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목숨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더 헌신해야지, 좀 더 순종해야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좀 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느라 몸부림친다.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그냥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15:9)고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렇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믿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마11:30)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신앙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리라. 그렇게 우리의 헌신과 사역과 일과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또 일이 잘될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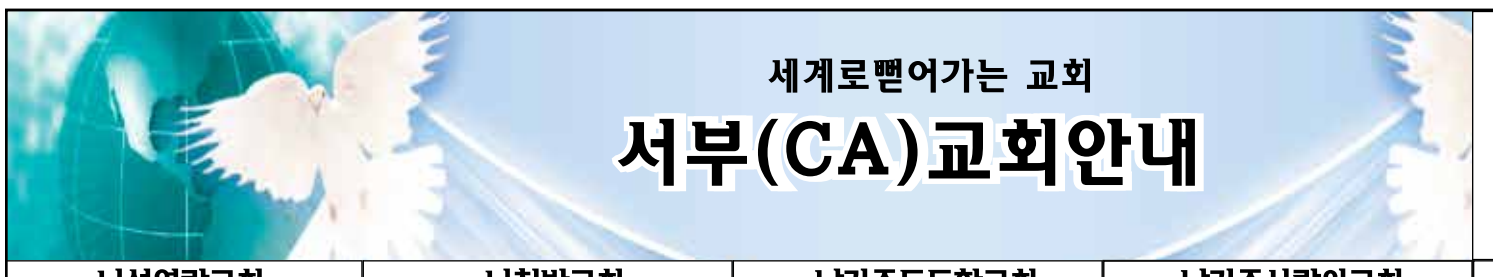
이렇게 수많은 말씀들과 강의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면서도 어쩌면 우린 옛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갈수 없는 것은 그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어떻게 그들은 읽을 성경 하나 없이도 전해들은 한 말씀 붙잡고 순교의 현장까지 갈수 있었을까!

욥은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42:5)는 고백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이다. 야곱은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한다. '내가 형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뵈온 것 같다'(창33:10)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원수 같았던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나는 것이리라.

그렇다. 편안한 가운데서는 어쩌면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가를....

아들을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만난 사람은 그 감격과 감사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내 고갈된 사랑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되어 하루하루의 삶이 노래와 감사가 흘러나오는 느낌표 있는 삶이되길 바란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changsamo1020@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여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 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 (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9:45(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ul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여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지용덕 목사
(미주양곡교회)

기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지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이 짧은 격언은 우리 조상들의 삶의 고뇌가 녹아있는 진솔한 표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여러 가지 시련의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산에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에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들판에도 바람이 불어옵니다. 깊은 산 계속에도 바람은 불어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마을에도 바람은 불어옵니다.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 가운데 태어나서 바람 가운데 살고 바람을 느끼지 못할 때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람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배의 돛을 만들기도 하고 풍력발전기를 만들기도 하고 농부들은 바람으로 곡식의 쭉정이를 날려 알곡을 거두기도 합니다. 바람은 유용한 면도 있고 때로는 심각한 위협을 주고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한숨짓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좀처럼 끝나지 아니하는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한 위협의 바람 한 가운데 있습니다. 소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바람은 개개인을 위협하고 가정을 위협하고 교회를 위협하고 직장들과 기업들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들과 세계 인류의 안전한 생존을 위협하는 극한 시련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인생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형편인데 바이러스 바람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소박한 희망과 소망의 날을 기약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 모두의 걱정이 아닐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불가항력적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깨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 to Temotation"(마26:41).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파악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엘 선지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심각하고 절실한 기도의 명령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울고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모아 금식기도 상회를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은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목회를 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자기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엉터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무리 주님의 일일지라도 기도 없이 하는 일은 그 연구 그 활동 그 봉사는 그 목회는 양심적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심정으로 금식하며 간절히 애써 하루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은 공부하고 가르치는데 기도는 게을리 한다면 목회는 하는데 기도를 게을리 한다면 참 하나님의 사람의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간절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셨는데 만약 기도 없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 없이 신학을 연구하고 기도 없이 봉사를 한다면 정말 그 본인이나 그 단체나 그 사회를 더 심각한 문제 속으로 이끌어가는 결과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힘겹고 어렵고 겁주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로 담력과 용기를 얻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회복하고 세상에 보여주어 교회의 존엄성과 영광성과 위대성을 만 천하에 나타냅시다. 세상 권력은 지나가는 권력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권력은 영원하십니다.

이 '바람 잘 날이 없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바람들을 기도로 잠재우고 금식으로 극복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악할 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눅11:13).

cyd777@hotmail.com

다민족기도대회에서 진유철 목사 기도인도에 맞춰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회개와 코비드19 극복, 부흥을 위하여...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 5가지 주제 온오프로 열려

2020 다민족연합기도회가 16일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코비드19으로 인해 현장 참석인원 100명으로 제한된 가운데 열렸으며 온라인으로 라이브 중계가 됐다.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기도는 5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다.

△회개와 코비드19 극복을 위하여(김춘근 교수, 정우성 목사, 안신기 목사, 강신욱 장로, 장경일 목사) △미국의 부흥을 통한 회복(진유철 목사, 김철민 장로, 박상목 목사, 오윤태 목사, 이정현 목사) △국가지도자들과 선거(디온 엘모어 목사, 김경진 목사, 이호우 목사, 샘신 목사, 정영희 목사) △미국의 사회정의(카도 대우드 선교사, 김황신 목사) △청교도 신앙 회복과 고국을 위한 기도(박성규 목사, 김경일 목사, 박세헌 목사, 김신일 목사, 안병돈 장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춘근 교수(자마 설립자)는 "하나님은 이 비상시국에 비상한 기도를 요구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이 아니라 회개다. 이제라도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고 모든 맘을 다해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둬 가실 것이며 이 나라를 회복되고 치유하실 것" 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부흥을 통한 회복'이란 주제의 기도순서에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는 "미국이 오늘날과 같은 번영과 복은 청교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변질과 타락이 있지만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무리 팬데믹이 있어도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고 불경기 보다 크시다"라고 도전했다.

국가지도자들과 선거'란 주제의 기도순서에서 디온 엘모어 목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권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주 세밀한 법안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입법되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듯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도하자.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인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이란 메시지를 전했다.

'미국의 사회정의'란 주제의 기도순서에서 프레드 베리 목사(아주사 스트리트 미션)는 "인종차별은 한 인종을 다른 인종보다 높이는 것이기에 일종의 우상숭배이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인종차별을 같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들은 더 이상 흑인이나 백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알랜 파커 변호사(Justice 재단 회장)는 낙태 문제에 대하여 "이번 선거는 미국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선거다. 연방대법원에 낙태법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에 낙태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믿는 32만 명이 참가했다. 지금은 낙태를 하지 않아도 신생아를 입양시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일을 멈출 때"라고 외치기도 했다.

'청교도 신앙 회복과 고국을 위한 기도'순서에서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는 "기도할 길 밖에 없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는다. 한국은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있고, 미국은 청교도가 흘린 눈물과 땀과 피가 있다. 하지만 성경과 진리를 밀어내는 조국과 미국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진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한국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듯이, 청교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11월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찬양팀(인도 박종술 목사)의 찬양인도와 이성우 목사 사회로 열린 예배는 민승기 목사(미기총 회장, 갈보리새생명교회)가 기도했으며 이명희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가 성경봉독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기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사 38: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한기홍 목사는 "성경에 보면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민족을 건져주셨다. 사무엘 에스더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민족을 위기가운데 건져주신 것처럼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며 "첫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1위이고 둘째,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총기, 마약, 알콜, 도박, 낙태, 음란물, 성범죄가 넘쳐나고 심지어 약탈과 방화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성교육으로 정체성 혼돈과 혼란스런 교육으로 윤리교육이 상실돼가고 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넷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교회예배와 학교수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11월 3일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총체적인 위기에 빠진 미국을 건져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 공동대표)는 축도에 앞서 기도회에 참가한 한인 및 아시안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영 김 연방하원의원 출마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잠들어 있는 미국을 깨우기 위해 정치에 헌신하기 원하는 중심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여종의 머리위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의날 행사가 방송되고 있다

'따뜻한 동행' … 후원손길 모아져

9일 미주복음방송 공개헌금의 날 행사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공개헌금의 날 행사를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covid-19로 인해 행사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 마켓에 설치된 7군데 방문 헌금부스, 5곳의 드라이브 드루(Drive Thru) 부스에서 마스크 착용, 얼굴 보호막, 장갑, 소독용품 등을 갖추고 모든 방역수칙에 최선을 다하며 행사를 진행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 되신 소식이 들리지 않는 곳곳에 흘러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문을 적어 이른 아침 다이아몬드바 한남체인 부스를 방문해 헌금한 청취자에게는 방송국이 마련한 선물가방으로 답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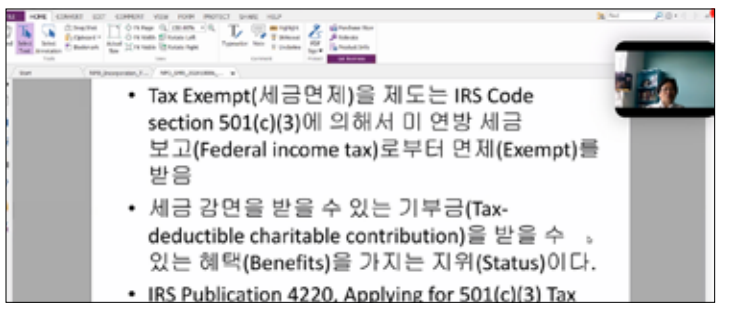
40여명의 진행자와 게스트,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후원하는 청취자들의 인터뷰로 꾸며진 공개 생방송은 시간 시간마다 은혜와 간증 그리고 기적의 체험 현장이었다. 이번 행사에는 250여명의 사전 참여자를 포함해 전화참여와 총 12개의 부스를 방문한 1,100여 명의 청취자들, 각 부스에서 헌신한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특별히 4개 지역의 교회 주차장과 GBC 본사에 마련된 드라이브드루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독감예방 접종을 위해 서울메디컬그룹과 30여명의 남가주 한인 간호사들이 함께 했다.

10일 현재, 총 499,844.53달러의 헌금이 집계됐다. 이 헌금은 상업광고 수익 없이 헌금으로만 24시간 방송되는 미주복음방송이 covid-19경기침체로 인한 후원 감소를 대비해 방송국 운영비용 보조와 노후 방송 송출장비 보완, 다음세대를 위한 프로그램 단계별 개발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GBC에서는" 나눔-On(온)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사랑 나눔의 스위치를 켜면(On) 모두가 (온)따뜻[溫]해진다'라는 의미를 담아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은 많은 청취자들이 직접 물품이나 성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방송국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미주복음방송에 연락하시면 작은 힘이라도 드리겠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ICMM주관 무료강의에서 구자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설립 및 Tax Exempt 신청

ICMM 주관 무료강의, 강사 구자혁 목사 도

선교와 목회를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Center for Mission and Ministry, 이하 ICMM 대표 구자혁 목사) 주관 비영리단체 설립 및 Tax Exempt 신청 무료강의가 17일 오전 10시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강사는 구자혁 목사.

구자혁 목사는 "비영리단체 설립할 때 주별로 설립가능 조건이 차이가 있다. 가주의 경우 종교, 자선, 사회, 교육, 휴양 또는 비슷한 목적들에 의해 설립 가능하다"라 설명했다.

구 목사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단체는 일반 코퍼레이션과 달리 주식이 없기에 오너십이 없다"며 "일반회사는 주식을 많이 보유한 자가 지분이 많기에 권한이 많지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이사들의 지분은 동일하다"라고 설명했다.

구 목사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설립 후 IRS에 2년마다 법인설립갱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인설립이 취소된다"며 "법인설립에 대한 사항은 SI-100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을 하면 텍스아이디(EIN) 번호를 받게 되는데 번호를 받으면 은행에서 법인구좌를 오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S에 Tax Exempt 신청시 FTB3500A를 첨부해서 보내야 하는데 신청서를 보내지 않으면 세금보고 할 때 800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영리단체는 3년간 세금보고 한 것이 IRS 사이트에 공개된다. 따라서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영리단체 설립시 이사들은 보통 3명이상 20명이하 정도로 결정하게 되며 3명의 임원(대표, 비서, 회계담당자)이 필요한데 임원은 3명 모두 동일 인물으로 결정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 주제

아주사퍼시픽 신대원 코리언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폴 퍼거슨 박사) 신학대학원 코리언프로그램은 13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온라인 강의를 열었다.

변명혜 박사(본교 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디렉터) 진행으로 열린 이날 강의는 다니엘박 박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니엘 박 박사는 "미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으며 미국에 사는 장점과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한인이민 감소와 신학생 감소를 보면서 이민교회 양적성장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미국으로 물질적 성공이 아닌 신앙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을 생각하면 한인들의 영적 회복과 성장의 땅이 될 수 있으며 한인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인이민교회의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차세대를 위한교회 건강한 리더십을 들 수 있다"며 "대부분의 교회가 차세대를 위한 목표를 세우지만 차세대를 위한 교회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다. 진정한 차세대가 미래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회가 중심사역을 차세대 사역으로 이동하고 최우선으로 둬야 한다. 담임목사들이 신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목회철학이 재정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설교와 교육 토론으로 이어져야 한다. 교회문화가 단기간 변하지는 않겠지만 차세대 중심 사역으로 전환이 선행되지 않고는 차세대 중심의 교회는 요원해질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욕빌라델비아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자격은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및 신대원(M. Div.)을 졸업하고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 경력(담임/부담임)이 있으며 △KAPC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자. 제출서류는 1)이력서(사진첨부, 한영 각 1부씩) 2)목사안수증명서 3)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4)추천서(목회자 2명) 5)최근 설교 2편(동영상 또는 음성) 6)자기소개서(신앙고백, 소명) 및 가족소개서 7)목회 비전 및 계획서를 이메일(sang78us@yahoo.com)이나 우편(2 Beacon Hill Rd, Port Washington, NY 11050)으로 보내면 된다. 제출마감은 12월 31일까지.

▲문의: sang78us@yahoo.com

아마추어 온라인 성악 콩쿨

주빌리뮤직아카데미(원장 에나김)가 주최하는 아마추어 온라인 성악콩쿨 '나도 성악가다'가 11월 21일(토) 오후 6시 열린다. 이를 위한 예선이 11월 5일(목)에 열리게 된다. 참가대상은 성악을 전공하지 않은 아마추어이며 등록마감은 오는 30일(금) 오후 11시59분까지다. 제출서류는 신청서(페이스북 Jubilee Music Academy 혹은 인스타그램 Jubilee.music에서 작성 또는 카카오톡 '쥬빌리뮤직'을 찾아 연락), 등록비 20달러, 연주영상이다. 참가곡은 예술가곡, 한국가곡, 아리아, 다양한 성악곡 및 크로스오버 성악곡이며 반주는 피아노, 바이올린 등 참가자들이 원하는 악기 또는 MR반주이며 무반주도 가능하다. 이번 콩쿨 심사는 미국, 한국, 캐나다의 성앙가 및 성악가 교수들이 맡게 된다. 시상내역은 1등 1,000달러, 2등 500달러, 3등 300달러, 인기상 200달러, 우수상 100달러(5명)이다.

▲문의: (213)435-8741

미주장신대 가을학기 박사과정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가을학기 박사과정 수업을 10월 26-30일, 11월 2-6일 갖게 된다. 강의는 10월 26-30일 교수법강의이며 고종필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그리고 11월 2-6일 다원화 사회에서의 선교 강의이며 남성혁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강의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한국시간 기준)이다. 이번 수업은 코비드19으로 인해 줌을 통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상관없이 Ph.D 과정에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office@ptsa.edu, rbkim@ptsa.edu

새 회장 장규준, 부회장 정인수 이경림

동부개혁장신 총동문회 제 31회 정기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총동문회 제 31회 정기총회가 10월 19일 저녁 7시 퀸즈장로교회 지하친교실에서 대면과 비대면(줌)으로 열렸다.

동문회장 정기태 목사는 "팬데믹으로 많은 행사를 하지 못했지만 동문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선후배들의 협조에 감사하며, 새로운 31회기가 힘을 내며 달려가기 바란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부회장 장규준 목사 인도로 기도 최미하 전도사, 성경봉독 김신정 전도사, 설교 정기태 목사, 광고 정인수 목사, 축도 이원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정기태 목사(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는 "두드리시는 사랑"(계3:20)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시는 사랑을 어떻게 베푸셨는가" 묻고 "첫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나 힘들고 지칠 때나 계속 두드리신다. 둘째, 마음 문을 열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역사하시지 않는다. 셋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은혜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다. 넷째,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 주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함으로 방향을 제시받고 이 시기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 열심히 사역하는 동문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정기태 목사 사회로 회장인사, 회원점명, 개회순서, 회순채택, 전회록낭독, 사업고보, 서기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입후보자 추천, 당선자 발표, 당선소감, 신구임원교체, 신안건, 광고, 폐회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증경회장단의 추천으로 회장 장규준 목사. 부회장 정인수 목사(24회), 이경림 전도사(23회)를 선임했다.

신임회장 장규준 목사는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며 "30회기 동안 이끌어 오신 선배님들의 기반 위에 31회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교와 동문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 코비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동문들을 잘 위로하고 화합 연결되는 기회를 삼아 네트워크를 이루겠다"며 기도와 후원을 부탁했다.

한편 30회 총동문회는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장학금 후원(2회) △동문선교사 후원 △동문주소록 발간 △신학생과 동문과 유대강화 등의 사업을 했으며 △신년기도회 △총동문회의 밤 △기도회 △세미나(10월26일, 새사람교회) 등의 행사를 가졌다.

감사 노기송 목사는 재정을 꼼꼼히 잘 꾸려나간 임원단을 치하했으며, 회계 김은숙 전도사는 수입 13,715달러, 지출 12,389달러, 이월금 1,325달러 등을 보고했다.

〈유원정 기자〉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목사임직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이준희, Kevin Lee 목사 임직식 가져

제87회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정기노회

제87회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해외총회 뉴욕노회 정기노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종태 목사 인도로 한상흠 목사(직전노회장) 기도 후 김종태 목사가 "종들의 가신 길"(겔3:16-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이민철 목사(부노회장)의 광고 후 이대길 목사(증경노회장)가 축도했다.

2부 성찬 예식은 이민철 목사 집례로 정대영 목사(증경노회장) 기도 후 이민철 목사가 "예비하라, 예수의 몸과 피"(막14:1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종태 목사가 분병을, 한상흠 목사가 분잔을, 권영길 목사가 축도를 담당했다.

3부 목사 임직식에서는 이준희 강도사, Kevin Lee 강도사 2명이 목사로 임직 받았다.

임직예배 설교는 정익수 목사(뉴욕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장)가 "목사의 사명에 충실하라"(엡4:11-12)란 제목으로 전했다.

임직식은 임직 대상자의 서약에 이어 안수기도를 하고 안수위원들과 악수를 나눴다. 임직자들 성의 착의 후 공포, 2명의 신입 임직자들에게 고시 합격증서를 증정했다.

4부 폐회예배는 김종태 목사 사회로 진행해 신입 이준희 목사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예장(합동)해외총회 뉴욕노회〉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26주년 감사예배 및 항존직 은퇴/임직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항존직 은퇴/임직 예배 겸해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26주년 감사예배

필라 안디옥교회 설립 26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0월 11일 주일 오전에, 오후 5시에는 항존직 은퇴/임직예배가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안디옥교회는 호성기 담임목사의 권고에 따라 3월부터 COVID-19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졌고 예배 인원제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유지 등을 철저히 지킴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호성기 담임목사는 창립감사주일을 맞아 '흩으심으로 선교가 확장됩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후 5시에 진행된 항존직 은퇴/임직 예배에서 필라노회 노회장 민영선 목사(그레이스교회)가 영상으로 임시노회를 선포했고, 호성기 목사는 예레미야 45:1-5절을 본문으로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임직식에서 호성기 목사는 이번에 장립된 마재진 장로가 23년 전 청년 시절부터 안디옥교회에 출석하며 훈련됐고, 안디옥교회 안에 세대교체가 긍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 감사했다. 또한, 이번에 임직받은 서장혁 안수집사는 안디옥교회 산하 다섯 교회 중 하나인 안디옥 열방(다민족)교회의 세 번째 항존직 직분자로 세워졌으며, 안디옥 영어교회와 스페니시교회 역시 2년 전에 항존직 직분자들이 세워져 현재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항존직 은퇴/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은퇴장로: 박우일 △은퇴안수집사: 김종상, 이상원 △은퇴권사: 김복례, 최순기, 홍순덕 △장로장립: 마재진 △집사안수: 김선호, 김오순, 박장준, 서동찬, 제민철, 한주현, 열방교회(All Nations Church) 서장혁(Alex Seo) △권사임직: 권명희, 권위자, 권은희, 김순의, 마호영, 박정아, 박혜경, 유해숙, 이경미, 최은미.

〈기사제공: 필라안디옥교회〉

뉴욕목사회 49회기 정부회장 후보등록공고

등록마감 10월 29일, 정기총회 11월 16일

제 49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정기총회가 11월 16일(월) 오전 10시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목사회 선관위원회는 이날 선출될 회장, 부회장 입후보 등록 절차를 공고했다.

등록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0월 29일(목)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는 서기 박정오 목사(646-789-3477)에게 하면 된다.

심사 및 발표는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거송 식당에서 하며, 정견발표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뉴욕교협에서 열린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10월 20일(화)부터 11월 14일(토)까지다.

회장, 부회장 입후보 자격은 회칙 제4장 10조 7항에 의거해 ①목사 안수 10년 이상 된 자 ②뉴욕지구 거주 만 5년 이상 된 자 ③본회 임원 및 실행위원 역임한 자 ④인격과 품행에 결격 사유(법정 금고형 이상 인자)가 없는 자로 돼 있다.

〈유원정 기자〉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팬데믹 시대 열정 더욱 필요"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

미남침례회 뉴욕한인지방회 10월 월례회가 10월 13일 오전 10시 뉴욕 에벤에셀선교교회(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려 새 회기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뉴욕지방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총회에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회장과 임원들을 유임시킨 바 있다.

1부 경건회는 안승백 목사 인도로 대표기도 박춘수 목사, 설교 한필상 목사, 축도 장길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필상 목사는 "열정을 회복하라"(삿12:8-1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목회를 하지 못하고 전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온전하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며 "첫사랑을 회복하고 열정이 회복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지쳐있는 영혼들에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2부 회무는 회장 박춘수 목사 사회로 노기송 목사 개회기도 후 진행됐다. 이날 메트로폴리탄지역 침례협회(MNYBA) 미국 목회자들이 참석해 인사했다.

총무 신은철 목사는 새 회기 사업으로 △10월내 사모위로의 밤 △12월 뉴저지지방회와 연합 송년모임 △뉴욕지방회 4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을 보고했다.

△예산안은 8만 달러로 책정했으며 △2021년 6월 27-30일 청소년수련회 △8월 9-11일 목회자가족수양회 △신학생과 목회자자녀 장학금 신청을 공지했다.

△11월 10일 지방회 월례모임 때는 포스트 팬데믹 교회사역 포럼이 진행된다. "주일예배"와 "성인교육 및 차세대 교육"에 대해 2명의 발제자가 발표하고 적용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회장 박춘수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한 목회의 제한과 어려움을 나누며 "영적 측면에서 교인들이 침체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 찬송과 교제로 나가야 한다. 이 사역들이 침체되면 교인들은 더 침체될 것이다. 팬데믹으로 사역을 내려놓는 것보다 교회 상황에 맞게 방법을 선택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지혜롭게 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인총회 실행위원 박진하 목사는 내년 6월 계획된 미남침례교 총회는 팬데믹이 계속될 경우 온라인 진행을 연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월례회는 김영환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오른쪽부터 박성원 목사, 김정국 목사부부. 맨 왼쪽 김길홍 목사.

연신대원 미동부동문회, 투병중인 김정국 목사 방문

지난 8일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회장 박성원 목사)는 간암으로 투병중인 동문 김정국 목사(전 뉴욕교회협의회 회장, 전 뉴욕한민교회 담임)를 방문했다.

회장 박성원 목사 인도로 김길홍 목사가 마태복음 7장 7-8절을 본문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김정국 목사는 방사선 15번 키모테라피 15번 마지막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82세로서 지치지 않고 건강이 많이 호전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7가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만질 수 있는 손, 빠르게 걸을 수 없지만 걸을 수 있는 발, 생각할 수 있는 뇌, 씹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특별히 뉴욕일보에 '광야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던 글을 모아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회개를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은 외침의 소리를 책으로 출판해 펜데믹의 힘든 시기에 바로 서고 바로 생각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지침서를 내놓았다.

〈기사제공: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미동부동문회〉

이노비, 은혜가든양로원서 디지털음악회 개최

비영리문화단체 이노비가 10월 5일부터 일주일간 뉴저지 은혜가든양로원(Buckingham at Norwood)에서 콘서트를 상영했다. 코로나로 인해 찾아가는 콘서트가 어려워진 지금, 새로운 상황에 발맞춰 아이패드와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과 TV등을 통해 이노비가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콘서트를 어르신들과 의료진, 스탭들이 각자 병실과 사무실 등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

이노비는 앞으로도 양로원, 병원 등에 계속해서 촬영한 디지털 콘서트를 꾸준히 전달할 계획이다.

▲공연/후원문의: (212)239-4438 이메일 enobinc@gmail.com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24)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청교도는 법적으로 가정 대표 권한 지닌 남편이 성경 교육
가장의 권위붕괴는 교회와 가정에서 다음세대신앙 기대못해

2)청교도들의 교회론(教會論) 및 성경적 예배(Biblical Worship) 회복(回復)과 부흥(復興)

"하나님은 영(Spirit)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in spirit)과 진리(in truth)로 예배할지니라"(요4:24).

(1)청교도의 교회론(教會論)

청교도의 교회론은 당시 수준으로는 혁명(革命)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것은 영적(靈的) 실체(實體)라는 개념(概念)이다. 즉 교회는 위압적(威壓的)인 건물이나 화려(華麗)한 성의(聖衣)도 아니고, 또한 교회(教會)의 머리, 수장(首長)은 교황(教皇)이나 공의회(公議會), 나아가 국왕(國王)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이심을 믿는 구원(救援)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믿었다.

루터(Martin Luther)는 "교회는 영적인 집합체(集合體)이다....참되고 진실하며 순전하고 바른 교회는 외형적(外形的)이 아니요 영적인 무엇이다."

윌리엄 구지(William Gouge)는 교회가 "성령(聖靈)으로 말미암아 내적(內的)으로, 또 효과(效果)있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존 후퍼(John Hooper)는 교회가 "주교(主教), 사제(司祭), 그리고 여타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변(抗辯)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順從)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는 "교회는 공예배와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서로 교제(交際)하고 돕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무리이다."

이와 같은 교회(教會)의 정의(定義)는 보이는 교회(visible church)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invisible church) 즉, 우주적(宇宙的) 교회(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가 참 교회라고 청교도(淸教徒)들은 보았다. 그렇다. 교회(教會)란, 헬라어 에클레시아(Ecclesia)로서 그 의미는 '불러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교회란 "세상(世上)에서 부르심을 받은 회중(會衆)들의 모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 Lord)로 고백(告白)하는 자(者)들의 모임인 것이다"

(2)교회의 기능(機能) 즉 교회의 사역(使役)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禮拜)이다.

청교도들은 형식적(形式的)이고 의식(意識)에 치우친 예배를 배격하고 성경(聖經)에 근거(根據)한 순수(純粹)한 예배, 간결(簡潔)한 예배를 사모(思慕)하였다.

리처드 콕스(Richard Cox)는 "나는 교회를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순수하고 단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세상적(世上的)인 요소(要素)나 화려(華麗)함은 될 수 있는 한 멀리해야 한다고 본다."

카튼(John Cotton, 1585-1652)의 표현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사모(思慕)함이다."

청교도들이 주일(主日)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禮拜)하기 위함이다. 청교도들은 기독교(基督教) 예배의 세 가지 영역(領域)이 있다고 말한다. 곧 지역교회에서의 공적 예배(公的禮拜)와 가족 단위의 가정예배(家庭禮拜)와 골방에서의 개인예배(個人禮拜)인 것이다.

3)성경적 예배(Biblical Worship) 회복(回復)과 부흥(復興)을 위한 가정(家庭)의 중요성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性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命)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講論)할 것이며..,"(신 6:5-7).

기독교 신앙의 개혁(改革)을 부르짖었던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자녀(子女)에 대한 종교교육(宗教教育)의 책임(責任)을 부모(父母)들에게서 찾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言約)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당시 청교도 남편(男便)들은 법적(法的)으로 가정을 대표(代表)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 자녀들과 종들을 포함하여 자기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징계(懲戒)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가족(家族)의 우두머리(a leader; a chief)이며 주인(主人)이었다. 남편(男便)은 영적인 지도력(指導力)과 통제권(統制權)을 행사할 것을 기대했고 가족을 적절하게 부양(扶養)할 책임이 있었다.

조지 휫필드(George Whitefield)는 "한 남자(男子)는 다음 세 가지의 직무(職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自身)을 돌아보아야 하되, 첫째로 선지자(先知者)로서 가족을 가르칠 것이요, 둘째 제사장(祭司長)으로서 가족을 위해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할 것이요, 셋째 왕(王)으로서 가족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가족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쉬넬(Horace Bushnell, 1802-1876)은 가정(家庭)이야말로 기독교인(基督教人)이 되기 위한 신앙교육의 현장(現場)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언약(言約) 공동체로서의 정체성(正體性)이 유지(維持)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父母)는 교사(教師)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참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교육은(家庭教育) 결코 성공(成功)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더 나아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육할 때 그 방법(方法)도 신앙적(信仰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強調)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자녀들 각자(各自)에게 주신 다양성(多樣性)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적인 삶과 성품(性品)을 형성해가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정(家庭)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統治)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보았다.

청교도 매더(Increase Mather, 1639-1723) 목사는 국가(國家)의 건강(健康)에서 가정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한 사람이었다. 사회(社會)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음화(福音化) 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세상의 변혁(變革)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家庭)을 통해서 배출(輩出)된다고 지적했다. 세속(世俗) 정신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告白)하는 가정을 거짓된 세속(世俗)의 가치관(價値觀)으로 물들게 하거나 붕괴(崩壞)시키고 있다.

그렇다. 현, 미국 한인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問題點)은 가정의 붕괴(崩壞), 특히 가장의 권위(權威)의 붕괴(崩壞)에 있다고 본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長老)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수24:31).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世代)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Jehovah/ Yahweh)의 목전(目前)에 악(惡)을 행하여 바알(Baal)들을 섬기며"(삿2:10, 11)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즉, 부모(父母)들이 자녀(子女)들에게 신앙 전수(傳授)를 실패함으로, 곧 바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不順從)하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偶像崇拜)의 죄악(罪惡)에 빠져 버린 것이다. 결국 400년간을 방황(彷徨)했던 사사(士師) 시대의 뼈아픈 교훈(教訓)을 우리는 확실히 기억(記憶)해야 한다.

세속(世俗) 정신(精神)에 물든 기독교 가정(家庭)은 다음 세대에 참된 교회의 영적(靈的) 번영(繁榮)과 하나님 나라(Kingdom of God)의 회복(回復)을 위해 헌신(獻身)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다. 2020년 현재,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정부(政府) 주도(主導)의 동성결혼 합법화(合法化)와 낙태, 등등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으로 대표되는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정책(政策)과 입법(立法)으로 창궐(猖獗)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교도적(淸教徒的) 참된 교회의 부흥(復興) 발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충성(忠誠)된 경건(敬虔)한 자녀를 전사(戰士)들로 키워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세대의 영성(靈性)을 1.5세, 2세, 3세들에게 교회(教會)와 특별히 가정(家庭)에서 부모(父母)가 먼저 성령충만(聖靈充滿)함과 신명기 6장 5-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통치(統治)와 인도(引導)하심에 전적(全的)으로 순종, 복종하면서 자녀들을 양육(養育)해야만 거룩하고 성령충만한 다음 세대(世代)를 기대(期待)할 수 있다.

kimjoyh@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온라인예배, 동의하지만 만족도는 낮다

기사연,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온라인예배의 불가피성엔 동의했으나 온라인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고 응답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을 물으니 55.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예전처럼 교회에 출석해 예배드릴 것 같다'는 응답은 73.4%로 조사됐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크리스챤아카데미 및 기독교사상과 함께 14일 서울 서대문구 연구원에서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통계분석 발표회'를 열었다. 세 단체가 지난 7월 지앤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신앙관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분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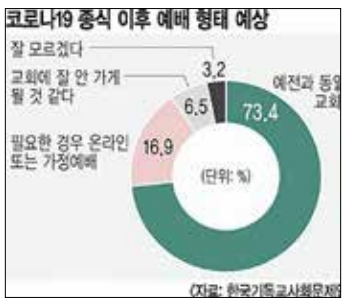
조사 직전인 지난 7월 19일 주일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질문에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응답은 32.2%,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29.6%, '출석 교회의 온라인예배를 드렸다' 23.0%, '가정예배를 드렸다' 6.9% 순이었다. 7월은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을 폈던 시점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현재와 비슷한 환경이었다.

온라인 혹은 기독교방송으로 예배를 드린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물은 결과 52.8%는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31.7%는 '현장예배와 비슷했다', 15.5%는 '현장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고 답했다. 불만족 의견이 과반이었다. 100% 온라인 교회에 다닐 의향을 묻는 말에도 '그렇지 않다' 25.5%, '별로 그렇지 않다' 30.0%, '약간 그렇다' 21.8%, '매우 그렇다' 5.4%, '잘 모르겠다' 17.3%였다.

주일 성수 의식이 약화되는 흐름도 감지됐다. '주일 성수를 위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답변은 27.8%,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는 61.6%였다. 지난 4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같은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반드시 교회에서'라는 답변은 12.9% 포인트 떨어졌고, '온라인 또는 가정예배' 응답은 7.0% 포인트 증가했다.

개신교인 정치성향에선 보수층 약진이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선 보수 21.4% 중도 46.6% 진보 32.0%였는데, 올해엔 보수 28.8% 중도 39.8% 진보 31.4%로 나왔다. 분석을 담당한 이상철 크리스챤아카데미 원장은 "코로나19 방역으로 보수적 흐름이 나타난 것 이외에 집권 여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반작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찬반 물음엔 38.2%가 반대, 42.1%가 찬성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반대 비율은 60대와 중직자,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자, 500명 이상 중대형 교회에서 높았다"고 밝혔다.

성도들의 의견이 일치된 분야는 생태였다.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97.0%가 공감했고, 경제성장이 안 되더라도 지구온난화를 우선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88.9%였다. 기사연 원장 김영주 목사는 "한국교회를 바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통찰을 얻는 계기로 통계가 활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감, 9년새 교인 28만명 감소

교단갈등 탓…감독회장 자격 소송전 10년간 100여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인이 최근 9년 사이 28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교단 갈등이 교인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감의 '2019년 교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감의 전체 교인 수는 130만4856명이다. 기감 교세는 1990년 중반 130만명을 넘어선 이후 매년 성장해 2010년 158만738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2019년까지 기감 소속 교회를 떠난 교인은 28만2533명에 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세가 21만9086명(2019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10년도 안 돼 최소 교단 한 개가 사라진 셈이다.

'2019년 교세 현황'은 기감 선교국이 12개 연회가 보고한 지난해 교세통계를 종합해 발표한 것이다.

기감은 2008년 말부터 감독회장 전원이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직무대행이 사실상 기감을 대표했다. 4년 전임 감독회장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제대로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은 신경하 목사가 유일하다. 한때 다른 교단 장로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정도로 혼란은 컸다. 당초 기감은 담임목사직을 유지하면서 감독회장을 동시에 맡는 '2년 겸임 감독회장 제도'를 운영했지만,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감 감독회장 자격을 놓고 10여년간 진행된 소송만 100여건이다.

홍성호 강원도 대관대교회 목사는 19일 "기감이 10년 넘도록 감독회장 자격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면서 교단 전체의 질서가 무너졌다"면서 "성 추문을 일으킨 목사가 연회 감독에 당선됐던 게 대표적인 일로 많은 교인이 이런 현실에 염증을 느껴 교단을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교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보다 정치에만 관심이 큰 교단의 현실이 안타깝다. 교단 전체가 건강하지 못한 정치에 오염됐다"면서 "속히 2년 겸임 감독회장제로 돌아가 감독회장의 권한을 축소해야 개혁의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기감 내부 갈등은 교회연합사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의 한 관계자는 "교권 갈등이 심해지면 교단의 보수화가 가속화된다"면서 "기감이 10여년 갈등을 빚으면서 진보적 교회연합운동의 중심축인 NCCK의 활동도 함께 위축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어 "더욱이 사랑과 나눔으로 대표돼야 하는 교회 공동체가 긴 시간 갈등을 빚으면서 대사회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전 · 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성명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을 훼손하고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며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차금법 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14일 촉구했다.

성명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및 합동 교단 등 30개 주요교단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과 전·현직 기독대학 총장들 모임인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차금법 제정 시도가 계속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성명을 주도한 정상운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은 "차금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바로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은 제약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각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 차금법 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침, 27일 온라인 정기총회 확정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제110차 정기총회를 오는 27일 전국 26개 거점교회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틀로 예정했던 일정도 하루로 축소했다.

이날 온라인 총회를 확정하기까지 기침은 여러 번 일정 취소와 연기를 반복했다. 기침은 지난달 20-21일 경주에서 정기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임시 임원회를 열어 이달 12-13일로 미뤘다. 장소는 같았다. 추석 연휴 직후엔 장소를 경주에서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지만 지난 7일 평창군이 '집합금지 명령 공문'을 총회에 보내면서 또다시 연기했다.

기침은 지난 8-13일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총회 등록 대의원 8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정기총회를 대면으로 드리냐'를 두고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응답자 483명 중 72%인 348명이 온라인 정기총회를 꼽았다.

총회 본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 총회를 결정했지만, 일부 대의원은 정기총회 일정이 세 차례나 바뀌면서 혼란을 일으켰다며 총회 행정력에 불만을 제기했다.

총회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정기총회를 대신하면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일정을 미루더라도 현장 총회를 열려고 했다"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설문으로 대의원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기침 총회 규약에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기총회를 열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할 별도의 총회 소집에 대한 내용이 없다.

"교회가 선교 주체…교인을 선교자원으로"

'2020 세계교회지도자 미전도종족개척선교대회

"역사적으로 부흥 전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습니다."

미전도종족 선교운동 단체인 미국의 남은과업성취운동(FTT) 총재 릭 워런 목사는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워런 목사는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회는 '예배하고' '교제하며' '제자 삼고' '양육하고' '전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FTT와 세계협력선교회(GAP)는 지난 14-16일 인천 필그림선교교회(김성준 목사)에서 '2020 세계교회지도자 미전도종족개척선교대회'를 열었다. 미전도종족은 복음을 접하지 못했거나 교회나 모국어 성경이 없는 등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복음화하기 힘든 종족 집단을 가리킨다.

대회는 워런 FTT 총재, 폴 애쉴만 국제 CCC 부총재 등 국제단체 지도자와 90개국 현지인 목회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30개국, 3000여명의 현지인 사역자 및 목회자가 참여하는 국가별 선교대회로 전환,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궁헌 GAP 공동대표는 "하나님은 차선이 아닌 최선을 주시는 분"이라며 "온라인으로 열었는데 하루 평균 조회수가 7000회 이상 나와 현장에서 열렸던 때보다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교 전문가와 목회자 등 참석자들이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교환경을 진단하고 미개척·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고민했다. FTT에 따르면 전 세계 복음화율 0.1% 미만의 미개척종족은 5000여개나 된다.

18차례 진행된 강의의 핵심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이다. 미전도종족의 제자훈련 운동을 하는 단체 비욘드의 대표 캔트 파크스 박사는 교회가 '사도행전적 무브먼트(운동)'를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크스 박사는 "'종족 개척'의 개념이 아닌 모든 종족을 제자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뜻"이라며 "몇 개의 교회를 세우는 데 선교의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회 마지막 날 안강희 선교사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미개척종족 선교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안 선교사는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선교 방법은 협력 선교"라며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돼야 하고 전 교인을 선교 자원으로 육성해야 한다. 선교단체는 교회에 훈련 노하우 등을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안 선교사는 GAP 국제사역 대표이자 FTT 국제사역 개발코디네이터다. 이번 대회 국제 실행 총무를 맡았다.

미 선교단체 글로벌게이츠의 데이비드 게리슨 이사는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전략 세우기 4단계'를 소개했다. 다음 대회는 2025년 춘천성시화운동이 주최할 예정이다.

기/도/칼/럼

박헌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정죄감에서 해방을 받으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아 피 흘려 돌아가시고 정죄함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속죄함은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정죄대신 사죄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의 은혜로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정죄감에서도 해방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가 정죄감에 묶여 살 때가 많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정죄감은 더해진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 더 이상 정죄는 없다. 내가 잘못할 때 사랑의 채찍질은 하시더라도 정죄는 안하신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따라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정죄감에 사로잡히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늘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퇴보하게 된다. 과거의 실수에 묶여 미래와 희망은 없어지고 늘 피해의식 속에서 힘없이 살아가게 된다. 예배할 때에 기쁨도 없고, 말씀의 은혜도 없고, 기도응답의 확신도 없게 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성령은 소멸되고 영적인 우울증에 시달려 믿음은 떨어지게 된다.

정죄감에서 벗어나려면 정죄의 영, 참소의 영을 대적하고 쫓아내야 한다. 마귀는 밤낮 없이 성도를 참소하는 악한 영이다. 죄를 들추어내고 자격지심을 들게 해서 매사에 발목을 잡는다. 물리쳐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때로, 이미 회개한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죄책감이 생기더라도 느낌에 속지 말아야 한다. 마귀가 찾아와서 참소하는 것이다.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는 끝이 났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를 믿어 정죄에서 해방을 받았으면 정죄감에서도 해방을 받으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8:1).

bible66@gmail.com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

내달 7일 2020 기독교변증 콘퍼런스

2020 기독교변증 콘퍼런스가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를 주제로 다음 달 7일 충북 청주 서문교회(박명룡 목사)에서 개최된다. 기독교변증 콘퍼런스는 2012년부터 매년 열리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변증 행사다. 이번 콘퍼런스에선 이단 종교가 추구하는 잘못된 신관과 성경의 바른 신관을 비교·분석하며, 도올 김용옥 교수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반기독교 가치관을 비판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콘퍼런스를 준비한 박명룡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신길성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변증 콘퍼런스를 통해 비기독교인 눈높이에서 이 세상에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변증해왔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무신론자이자 범신론자인 도올 김용옥 교수가 말하는 기독교 신관이 정통 기독교의 세계관과 얼마나 다른지 지성적 탐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에선 김성원 서울신대 교수와 안환균 변증전도연구소장 등이 여호와의증인, 몰몬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등이 표방하는 신관과 성경적 신관을 비교한다.

안 소장은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여호와의증인 등 이단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며 정통 기독교 신관과 신앙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상대주의 가치관이 팽배한 시대, 기독교가 말하는 신관을 논증해 예수의 유일성을 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퍼런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생방송은 청주 서문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종교 자유 보장 법률안 제시하자"

한복협 월례회서 차별금지법 대응 목소리

한국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비해 범교단 차원에서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정기 월례회에서 "현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이상 막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대안 차원에서 기독교 범교단 차원의 가칭 '종교의 자유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기독교 성직자의 목회활동 자유 및 프라이버시 침해, 교회 직원 채용시 교회의 자율권 침해, 이행강제금·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한 교회의 재산권 침해 및 목회자의 교회사역 위축, 중·장기적으로 기독교의 왜곡·말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먼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림으로써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와 함께 "해당 법에 따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입장 표명), 행사, 캠페인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평성 차원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입장 표명), 행사, 캠페인 보장의 명문화를 요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기독교의 생명선 확보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울증과 영적 치유" (27)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삶은 주께서 주신 선물, 절망은 평강과 기쁨의 능력 약화시켜
죄책감 수치심으로 혼란스러우면 변화해야 할 것 있다는 의미

5)절망과 자살의 영

어떤 이들은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며, 아무도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또 자신이 쓸모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는 음성도 듣는다. 그들이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절망의 영에게 문을 열게 된다. 절망의 영은 말 그대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괴롭게 한다. 사람들에게 스스로 생을 끝내야 그 고통이 끝날 것이라는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짓말에 대항하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삶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삶은 고통일 뿐이라는 마귀의 거짓을 그대로 놔두지 말라. 삶 속에는 어렵고, 아픈 시간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격려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끝내는 아픔의 시간 속에서 건져 내어 우리를 치유해주실 수 있다. 절망의 영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고치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당신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을 위한 문을 여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을 배워야 한다.

기도: "예수님,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 안에서 치유를 얻어 저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제게 주신 제 삶을 소중하지 않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모든 죄악 된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지각하는 능력으로 바꾸시어 당신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명확한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선물로 주신 삶과 저 자신을 가치 없게 여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저 자신도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같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6)집착,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

만약 당신이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계속 혼란스럽다면, 변화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과 가족, 혹은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술, 마약, 성적인 죄, 분노, 걱정, 근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등의 중독적인 삶에 빠져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당신의 삶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치유 받기 원한다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다. 마귀가 당신을 비난하지 않게 조심하라.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당신 자신이 원망하고 자해하며 비난하는 데 힘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쭈어 보라. 회개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것은 사탄의 비난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준다.

당신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당신의 죄를 적고, 하나씩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자신, 혹은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간구하라.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원한 갖는 것을 그만두라.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나 물건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 사람이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수록, 우리는 많은 혼란을 겪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안사항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 "예수님,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해로운 행동을 한 저를 용서해주세요. 저는 죄와 해로운 삶의 습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제가 당신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시어, 의존성, 불순한 사상이나 중독 같은 것을 더 의존하고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슬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불순한 욕망, 생각, 행위, 혹은 말이나 행동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삶을 통해 주님을 그 누구나 혹은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로 정했사오니 제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주 예수님, 저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어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축복해주세요. 주님을 사랑하기로 변화하고자 결단을 내릴 믿음을 갖게 축복해주세요.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분노와 원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용서해주세요. 모든 사람과 저 자신도 용서를 하오니 주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 그 어떠한 죄도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께만 집중하여 중독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열망에서 떠나 치유를 가져다주는 순수하고 거룩하며 결점 없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yonghui.mcdonald@gmail.com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서론1: 인간의 마음,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물질이나 사람으로 채울 수 없어
오직 예수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능해

세상에는 채워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도 어느 정도 먹으면 채워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허기짐을 느끼듯 인간은 그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무엇으로든 채우려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채웠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욕심은 평생 그 공허한 마음,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어린 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최고고 깨진 구슬, 엄마가 안 쓰는 화장 도구, 알이 빠져버린 머리핀도 좋고 이쁜 돌멩이도 다 소중하여 그것이 전부인줄 알고 자랍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점점 더 새롭고 더 좋은 것을 찾게 되고 친구가 부모님보다 더 좋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에서 애인, 애인에서 배우자, 배우자에서 자녀들, 결국 자녀들 내려놓고 손주들로 전환됩니다. 그것 역시도 날마다 더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빈 마음 채우기인 것입니다.

그러다 물질,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큰 사업을 하여 더 많은 물질, 돈으로 삶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일해서 모은 물질, 사랑해서 시작한 가정,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18평 내집, 18평에서 24평, 32평 집 크기가 더 커지면 그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물질이 많아져도 집 크기가 커져도 집 크기가 커지는 만큼 그 마음의 빈자리도 더 커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어 자신의 시체가 쉴 반평 정도 얻을 텐데 말입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면 이젠 독서, 운동, 다이어트, 여행 등 무엇인가에 마음을 묶어두려 하고 유투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의 가상현실에서 순간을 잊으며 살던지 심지어 술, 도박, 마약, 게임 등 현실을 도피하여 순간의 재미로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을 채우려합니다.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눅19:1-10).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는데 당시 세리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들의 부를 축척했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돈을 착취했고 또한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욕을 먹으면서도 그는 오직 물질, 돈이면 그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욕도 증오도 손가락질도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허전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눅19:8).

그는 예수님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서야 그 생명과 같은 물질로부터 떠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통제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갈급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까?'라고 질문했더니 '쪼~끔만 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전5:10).

성경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요3:1-21).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면 지금의 국회의원 정도의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성경에 능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심지어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나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하십니다.

그럼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 전 세상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창1:2)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것,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삶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살던 무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요4:1-42). 유대 지역의 낮 시간은 무척 더워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도 이 여인은 성경 시간으로 6시, 그래서 6을 더한 시간인 낮 12시에 물을 길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을 패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이미 다섯 남자가 있었고 현재는 여섯 번째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많은 남자들과 살아야 했을까요? 이 사람이면 채울 수 있겠지 하던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졌고 사람을 바꾸면 채우리라 믿었지만 사람을 바꾸어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를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통행하지도 않았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4).

그러자 남편 다섯을 바꾸고 여섯째 남편과 살며 사람을 두려워하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요4:28, 29).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자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도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공허한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2.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7:37, 38). 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11:28-30).

당신의 빈 그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hfamilyfa@gmail.com

CMF선교원 10월 정기월례예배

CMF 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10월 3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10월 정기월례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10월 정기모임예배는 CMF 찬양 팀의 찬양으로 시작해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 기도한 후 김면철 목사(CMF)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눅10:25-3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면철 목사는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너는 이웃인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셨다"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이에게 이웃은 남이 아닌 당연히 돌봐야 할 내 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뜨고 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자와 같이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돼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 붙들리어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호사를 맘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CMF 10월 정기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설교 후 더글라스김 목사(HYM대표) 인도로 △회개와 회복을 위해 △코로나19에 걸린 대통령과 영부인의 회복과 11월 3일 대선을 위해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한 후 더글라스김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CMF사역 소식으로 지난달에 이어 페루지부가 MK사역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 베네수엘라에 의료품과 구호품 보내기,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결혼교실 강의가 나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 기자〉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시3:1-4)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 그 영혼에 대적이 많습니다. 다윗도 나의 영혼에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더 신실하게 잘 해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려운 일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 오는 충격이 더욱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왕은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맨발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핵심적인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백성들은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대적의 공격과 저주 속에서 다윗은 사람들과 부딪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화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시3:3-4)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원문 2절과 3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말이 빠졌는데 "나의 당하는 고통이 심히 크고 괴롭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요16:22-33).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 기도하는 사람의 매력(시3:5-6)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잠 잘 자고 잘 깨는 축복을 누립니다(5절, 127:2).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잠을 잘 잘뿐만 아니라 잠을 잘 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잠 잘 잡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매력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합니다. 6절 '천만인'은 "셀 수 없는 숫자" "Tens Thousands" 천천만만을 말합니다.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싸고 공격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은 기도하는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확신과 함께 누리는 매력이요 능력입니다.

목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시3:7-8)

기도하는 사람은 천천만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이 중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손보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의 매력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축복하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8절).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늘 내가 잘되고 내가 응답받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 지역이 복을 받고 나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역경과 환난은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금 기도하는 경건한 성도(시4:1-3)

시편 4편은 3편과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시편 3편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받은 은혜와 복을 말하는 "아침의 시"라고 한다면 4편은 저녁에 하루일과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해 찬양하는 "저녁의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많은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영혼의 기쁨이 더욱 충만해서 영적으로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고백으로 세상에서 헛된 일을 경영하는 사람과 경건한 성도와의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지에 대해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성도들은 가정마다 경건한 자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토 경건한 성도의 복(시4:3-4)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복이 보장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딤전4:7,8). "경건한 자"는 히브리말로 "카시드", "총애 받는 자"(하나님의 모든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으로 택함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해서 그 시간과 과정을 대단한 것처럼 느끼거나 자랑하려 하는데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코비드(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6)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가장 중요한 장소 가정, COVID19으로 건강성 회복 기회삼아
①물리적 시간 갖기 ②자녀와 토론시간 갖기 ③매주 가정예배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코로나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는 우리 상황을 재점검해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다. 그 중요한 메시지 중의 하나가 바로 가정에 대한 재발견이다.

가정은 구원의 방주이고, 사랑의 실천의 장소이고,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평강의 장소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러한 귀한 장소를 잃어버리고 살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아내와 남편간의 사랑이 메말라갔고, 가정은 잠깐 눈 붙이고 옷 갈아입는 여관 같은 장소로 전락해버렸던 우리의 지난 삶!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싶어 마침내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얼마 만일까? 가족이 모두 함께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마도 산업사회 도래 이래 최초일 것이다. 아빠와 엄마, 자녀들이 함께 집에 거하며 하루 종일 함께 얼굴을 보고 살게 되는 것 말이다. 첨에는 어색했지만 차츰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정의 모습을 복원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더믹 그 자체는 불행이지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COVID-19은 가정의 건강성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

하나님은 가정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을까?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원초적인 기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가정은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정원이요, 질서와 조화가 넘쳐나는 공동체(고전14:33)요, 화해와 용서가 선포되는 제단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섬김과 봉사가 넘쳐나는 자선단체이며, 영적 도야가 행해지는 학교이다. 그래서 Robert Wolgemuth는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The most important place on earth)라고 표현한 바 있다.

하나님은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을 원하신다. 가정이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건강한 가정은 정서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녀를 양성해내어 장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적있는 삶을 이끌어 가게 한다. 건강한 가정은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자기 가치의 소중함을 알고 자신을 존중할 뿐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셋째로 건강한 가정은 자신의 목표를 가정 공동체의 선을 위해 희생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게 한다.

성경은 이러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자녀들이 그들의 시대가 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냈던 많은 부모님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모세의 부모님들이 그러했고, 다니엘의 부모님들이 그랬으며 디모데의 어머니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어떤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또 어땠는가?

코로나 팬더믹의 시기가 도래해서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하락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키워낸 부모들의 아름다운 가정교육의 이야기를 반추해보자. 하나님은 코로나 팬더믹을 통해 로 인해 이러한 가정의 근본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의 사랑과 평강이 회복할 절호의 기회로 만드셨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범죄 및 사회성 연구를 계속해온 James Garbarino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이들의 성장의 핵심이라 보고 건강한 가정의 특성을 다음 여섯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첫째, 가족구성원 각자는 서로에 대해 친밀하고 온화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상대방의 처한 환경과 현재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각자는 서로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재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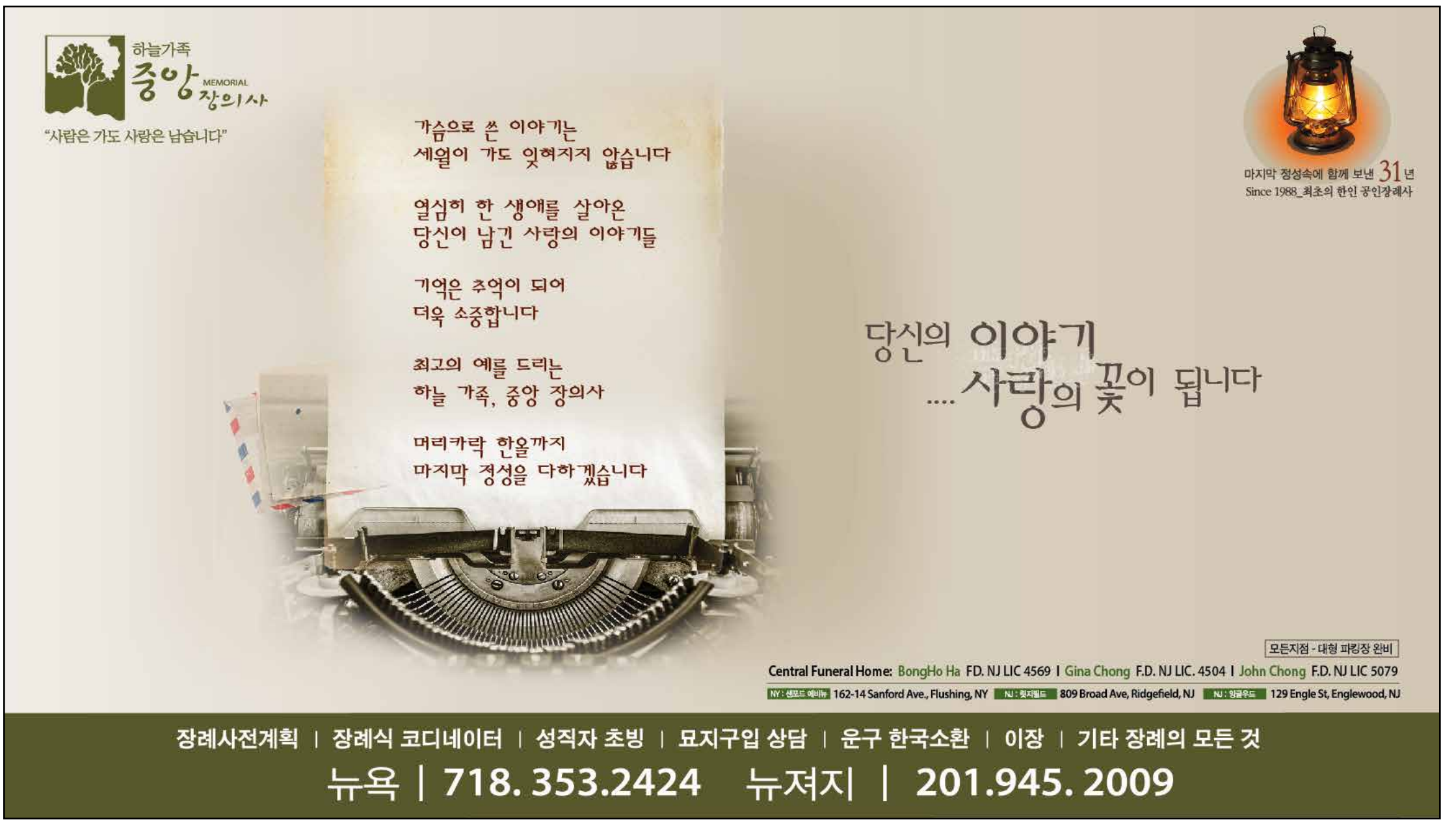
둘째, 가족구성원 모두는 같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건강한 가족은 비록 각자가 서로 다른 스케줄로 바쁠지라도 그들은 가족이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절대 양보한다. 예를 들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토요일 오후에는 함께 가족시간을 보내는 등, 그들은 일정시간에 함께 만나 대화하고 시간을 같이 공유한다.

셋째, 가족구성원들은 서로가 진실하고 성실하며 정직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나이와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권위주의적 대화보다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자신의 연약과 약점을 이야기하고 가족구성원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또 상대의 문제에 대해 진실로 아파하며 함께 고민하며 어떻게 도울까를 함께 논의한다.

넷째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하나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문제보다도 가족공동체의 목표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한다. 가족을 위해 개인의 스케줄을 희생하며 기꺼이 헌신한다.

다섯째, 가족구성원들을 위한 영적인 케어와 돌봄이 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

〈15면으로 계속〉



선교 편지

인도

할렐루야! 추수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여러 곳에서 불황을 겪고 있지만 미전도지역 북 인도에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 선교와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리며 9월 현장 선교 보고와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구제, 선제의 열매

델리에서 부활절 때 양식 나누어주기했던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35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층민들과 불가촉천민들로 예수님만이 희망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기도하옵기는 예수님만이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였으니 이제부터 천국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깨를 펴고 예수이름으로 선포하며 왕처럼 나아가게 하소서.

수고하신 현지인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오토바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5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 채워져서 기동력있게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성경 나눠주기

2억5천만이 살고 있는 U.P주(Uttar Pradesh State)에는 인도 29개주에서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데 지금 그곳에는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골 한 지역에 저희 마라나타신학교를 졸업한 남매가 신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사역한 아버지 목사님을 도와 아주 활발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천명에서 5천명까지 집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 수많은 청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저희 마라나타신학교는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의 군사로 무장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전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주님이 함께 하사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주고 있지만 더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신학교가 세워져서 수많은 청년들이 십자가의 군사로 양성되게 하소서.

마라나타신학교

9월에는 신학생들에게 Zoom으로 로마서를 티칭하였고 학생들은 5번씩 말씀을 읽고 각자 말씀 요약을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기도하기는 언제 어디서나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람푸르센터에서는 100명 넘게 침례식을 하려 하였지만 추수기로 지연되었습니다. 곧 추수가 끝나고 기다리던 새신자들이 침례를 받게 하소서. 성전 안 페인팅 공사가 이쁘게 진행되게 하소서.

델리 성전건축

중단되었던 델리 성전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공사금으로 행하니 나머지 5백만원이 채워질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소원하옵기는 속히 델리 마라나타 비전센터가 완공되어 신학생들 합숙훈련으로 수많은 델리의 청년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목회자 리더자 집회를 하여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라나타 사역이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타 주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집회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북인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리라"(잠19:17). 감사감사합니다.

인도 오직주&전하라 선교사 올림
jUng55353@naver.com

COVID-19 세대를 위한 교회교육

〈14면에서 계속〉

한 영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성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간다.

마지막으로 가정에 어려운 점이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모두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가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간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보고 각자 가정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자.

문제자녀는 없다. 오직 문제부모만 있을 뿐!

코로나 팬더믹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하는 귀한 기회이다. 함께 얼굴을 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 시간을 질적인 시간으로 보낸다고 확언할 수 없다. 가족이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가족애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 얼굴을 맞대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지 않으면 가족은 비록 같은 공간에서 산다고 해고 가족간 친밀감은 오히려 떨어지고 만다.

통계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들간 대화 시간이 하루 3분 이내라고 한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이나 소셜미디어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모는 또 다른 이유로 자녀들과 진실한 대화를 외면한다. 결국 아이들은 가정에서 또다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 이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이들의 사회적, 정신적, 영적 성숙을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린다.

첫째, 물리적인 시간을 가져라. 가족 게임나이트, 혹은 가족 특별이벤트를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져라. 둘째, 정신적 성숙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진지하게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자. 토론의 주제는 자녀들의 학습과 관련된 것도 좋고, 현재 정치적 이슈(대통령 선거 등)에 대한 것도 좋다. 연구에 의하면 지능이 높은 아이일수록 유해한 환경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아이들은 적어도 한 명 이상과 계속적인 사회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그들의 사회적 정서적 관계와 능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영적 성숙을 위해 매주 1회 이상 가정예배를 드리자. 함께 성경을 읽고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자. 코로나 팬더믹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며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명심하자.

hlee0414@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19.가정 폭력

서로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정을 나누며 사랑 하므로,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다투고 갈등하며 이혼의 경지에 이르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쉽게 말해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때로는 학대, 구타 등의 말로 표현되는데, 최근에 이르러 가정폭력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가정폭력'이란 말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가정폭력이란? 부부나 자녀 등 가족 내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로, 힘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힘이 없는 가족구성원을 통제하기위해 사용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인 모든 학대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흔히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때는 부부간의 폭력, 특히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내에 의한 남편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도 무시못할 정도입니다.

힘없는 가족구성원 통제위해 사용하는 모든 학대행위
신체적, 언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종교적 포함

2. 가정폭력의 유형

(1)신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은 배우자를 향하여 육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뺨을 때리거나 발길로 차거나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2)언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은 상대방을 지배하기 위하여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자존감을 파괴시키는 행위 입니다. 욕하기, 비난하기, 경멸적으로 말하기 등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벌을 주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3)성적인 폭력

성적인 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에 응하도록 협박하는 성적인 공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강압적인 성행위, 비정상적인 성행위 강요, 혼외정사, 음란물 사용, 매춘강요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성적폭력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부강간으로 인정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4)정서적 폭력

정서적 폭력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신상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애완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숴 공포심을 느끼게 만들고 주위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며 차갑고 비난하는 듯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경제적 폭력

경제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의식주문제를 해결할 돈과 물자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경제력 상실감을 주어서 삶의 가치와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굶주림에 의한 경제적 폭력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치한 방법입니다.

(6)종교적 폭력

종교적 폭력은 쌍방간의 종교불일치와 종교관의 차이로 인한 종교적 갈등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종교행위를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가정폭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자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가정폭력의 유형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 에서 가정의 큰 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한 영혼의 생명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므로 먼저 위기상황에 직면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가정폭력자와 피해자에 대한 내적치유의 과정입니다. 내적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가정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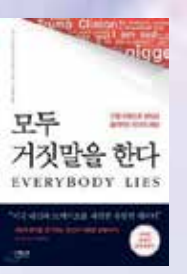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드,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 씩의 부상이 전달 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티븐슨 다비도위츠, 더퀘스트

침묵
엔도 슈사쿠
홍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
리처드 탈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 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팬더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8) 오네시모선교회 대표 김석기 목사

재소자들을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세운다

빌레몬 1장 11절("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니라")을 근거로 미국 감옥(Prison이나 Jails)에 갇혀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수 복음단체로서 1995년에 설립된 오네시모선교회(대표 김석기 목사). 이런 설립의도에 따라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영혼구원(눅15:7)과 그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바로 세우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를 통해 그간의 사역과 활동을 들어보았다.

"팬데믹으로 캘리포니아의 모든 감옥은 지난 4월부터 락다운(lock down)상태이기 때문에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됐기 때문에 예배, 방문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은 재소자들도 방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져 문서 사역과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더 효과적이며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김석기 목사. 그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쉼없이 영혼구원을 위해 뛰고 있다. 그가 지난 25년간 이어온 사역들은 다양했다.

오네시모의 감옥사역과 바이블칼리지 사역

그는 먼저 감옥사역을 들려준다. △감옥사역에는 예배 사역과 개인 방문사역 그리고 상담 사역이 있다. 감옥사역은 캘리포니아 35개의 주정부 감옥 7개의 연방감옥 그리고 카운티 감옥(county jail)과 이민국 감옥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집중하는 사역은 한인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재소자들의 가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돕는 일이다. 모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하여 수감된 카운티감옥이다. 이것은 개인방문을 통한 상담, 전도 사역으로 현재 450여명의 한인재소자들을 섬기고 있다.

두 번째 사역으로 △Onesimus School of Theology 사역(바이블칼리지 사역)을 꼽았다.

감옥에 갇힌 형제, 자매들에게 제공되는 커리큘럼이다. 철저한 칼빈주의의 신앙을 바탕으로 18년간 이어온 사역이다. 세 가지의 학위(degree)를 수여하고 있으며 현재는 80명의 영어권 학생들과 20명의 한국어권의 학생들이 통신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세워져 출감 후에는 본인의 헌신에 따라 사역에 참여하며 추방자는 선교사로 사역을 본국에 돌아가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New Life ministry사역이다. 오네시모 바이블칼리지의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소자 형제들이 형기를 마치고 자국 등으로 추방되는 형제들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자원하는 재소자들과 사명을 나누고 도와 자국으로 돌아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다.

현재는 Mexico Varacluz, Tijuana Tereza, San Luis, El Salvador, Colombia Bogota, Korea 등으로 나간다. 선교회는 이들에게 교회를 건축해주고, 영적인 지도, 교제를 통해 사명을 진작시켜주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원주민으로 미국 감옥에서 바이블칼리지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양육 받은 추방된 형제들이라고 한다.

추방자를 위한 사역쉘터 및 신학교사역, 문서사역

형기를 마치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국으로 돌아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이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들을 위해 오네시모선교회는 김포에 쉘터를 마련해 10여년 간 추방자들을 섬기고 있다. 공항픽업, 숙식제공, 예배, 직장알선 등으로 그들이 미국에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조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다. 그러나 이 사역도 현재는 코로나로 3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오네시모는 신학교사역도 감당하고 있다. 샌 루이스(멕시코) 지역에 있는 Cereso 감옥 사역을 통해 출소되는 재소자들과 샌 루이스 지역의 목회자들을 재 양성시키는 '오네시모 신학교 "사역이 있다. 현재는 교회 사역과 1년에 3회 집중 강의를 통해 지역 목회자들을 재양성하고 있다. 그 지역 출소자들의 리엔트리(Re-entry)사역도 함께 하고 있다.

김석기 목사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의 밤 음악회 모습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캘리포니아 카운티감옥 450여 한인재소자 대상 예배 상담 사역
바이블칼리지, 신학교, 문서선교 등 다양...예방사역 비전도 세워

이 외에도 Prevention Ministry(예방사역) 사역과 문서선교 사역을 통해 감옥에 성경 공급, 감옥 및 교도소에 있는 도서관에 신앙서적 공급, 2세 한인 재소자와 입양 재소자들에게 '한글배우는 교재' 한국을 알리는 서적공급(한국문화원 협조)과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영어와 스페니시로 번역한 복음지, 간증집을 중남미 감옥에 공급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역 어려워...많은 관심 필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는 오네시모선교회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재소자들에게 문서사역과 바이블칼리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여기에 동반되는 재정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이 일을 위해 뜻있는 분들의 동참과 기도가 절실하다. 이 사역에 마음과 뜻이 모아진다면 더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재정으로 인해 주춤거리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그가 또 당부하는 것은 문제를 피하지 말고 숨기지 말라고 한다.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대면하라는 것. 대면할 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또한 부모들이 정부, 또는 기관들로부터 행해지는 마약방지 세미나나 특별한 자녀들을 위한 모임에서 배울 것을 권했다.

또한 교회 역시 개교회 중심에서 커뮤니티교회로, 영혼구원의 1차적 목표와 함께 교회의 사회참여 역시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와 함께 재소자 학생들을 (international) 입양(adopt)해서 양육하기를 원하거나, 부모가 없고 돌볼 가족이 없는 입양아 재소자, 청년 재소자들에게 편지로 교제나누기를 원하는 교회나 개인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네시모로 연락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네시모의 계획과 비전

그럼에도 오네시모선교회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을 꿈꾸며 달린다. 오네시모는 예방사역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부모님들에게는 부모교실을 통해, 자녀들은 멘토링 사역을 통해 예방에 더 많이 집중할 것이라고 한다.

바이블칼리지 사역 역시 각 교회의 자원봉사 협조로 더 많은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장기수 재소자들을 감옥 사역자로 세우기 원한다고 한다. 출소 후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Sover Living Home 사역을 세우는 것도 그의 비전이다.

이처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김석기 목사는 "감옥사역 26년여를 해오면서 많은 이민 동포들을 만나고, 가정의 파괴를 보아왔고, 우리 자녀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한 모든 것이 파괴되는 시작과 과정을 보아왔습니다. 목회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민자로, 한 아버지로, 가장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이 미국 땅에 온 동포로, 그 실상을 보고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피워보지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허덕이는 부모따라 이민 와서 종신형으로 수십 년의 형을 받고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문화의 충격과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해 파국으로 간 아버지들, 그리고 뿔뿔이 헤어진 가족들, 습관 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한 신용사회에서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파탄과 절망을 범죄로 결과 지은 1세대들의 아픔을 보면서 저는 한가지 결론 밖에는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라고 결론 맺었다.

김석기 목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6)라는 잠언 말씀을 들려주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당부하며 특별히 학생들의 학과를 도와 평가, 지도해줄 자원봉사자(영어구사자)가 필요함도 강조했다.

오네시모 선교회에 관한 자세한 것은 www.onesimusministry.org에서 볼 수 있으며 (714)739-9100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